미래엔 교과서

평가 문제집

고등학교 공통국어1

바른답·알찬풀이

Mirae N 에듀

1 문학의 향기

01 서정 갈래와의 만남

산수유나무의 농사 문태준

내용 확인하기 10쪽

1 ③ 2 ① 3 ④

1 이 시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는 그늘을 점점 넓혀 가는 산수유나무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대비하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이 시의 화자는 산수유나무를 관찰하고 있으며,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이 시는 산수유나무의 속성을 농부의 마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산수유나무와 대조되는 속성을 지닌 대상은 '불평하는 사람들'이다.
⑤ 이 시는 '노란 꽃', '노랗다', '노란 좁쌀' 등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수유나무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 이 시에서는 산수유나무를 농부에 비유하면서 농사를 짓듯 그늘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이타적 존재로 의인화하였다. 이를 통해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시에 산수유나무에게 주어진 시련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시에서 '전통적 공동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이 시에서 산수유나무의 그늘 아래 잘못을 지닌 존재들이 모여든다거나, 산수유나무가 누군가의 잘못을 품는 행위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산수유나무와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만, 산수유나무가 인간이 없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3 ㉠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옥말려든다'는 안쪽으로 오그라져 말려드는 것을 의미한다.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타인을 위해 베푸는 배려의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람이 지닌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배려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은 타인에게 배려를 베풀지 않는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11쪽

01 ④ 02 ①

01 이 시는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지어 다른 생명들을 배려하는 공간이자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인 그늘을 넓혀 가는 모습을 통해 배려와 베풂의 미덕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이타적 존재인 자연과 달리 현실 속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들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② '불평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무한한 욕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 대비를 통해 배려와 베풂의 미덕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포용의 어려움을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불평하는 사람들'이 산수유나무의 그늘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이 시에서는 '그늘 농사'의 가치라는 추상적 대상을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와 같이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노란 꽃, 그늘도 노랗다,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과 같이 시각적 심상을 환기하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산수유나무와 그늘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③ 검고 어두운 이미지의 '그늘'을 '노랗다'고 표현하고,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드리우는 모습을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데에서 통념을 깨뜨리는 참신한 발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시어(산수유나무, 그늘 등), 시구(농사를 짓고 있다), 종결 어미('-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⑤ 산수유나무를 의인화하여 농부처럼 '그늘 농사'를 짓는다고 표현하였다.

소단원 평가 12~14쪽

01 ② 02 ① 03 ① 04 ⑤ 05 ④ 06 ② 07 ② 08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09 ① 10 ⑤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은 부드러운 꽃에 찔린다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부드러움이 갖는 힘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역설법을 사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1 (가)의 산수유나무와 (나)의 꽃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태도를 보여 주는 대상이다.

01 서정 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로, 서정 갈래는 인간의 생각과 정서를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하여 전달하는 문학이다. 한편, 인물 간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은 서사 갈래와 극 갈래가 지닌 특징이다.

02 이 시는 꽃을 피워 그늘을 넓혀 나가는 산수유나무의 모습을 통해 이타적인 삶의 태도와 배려의 가치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시의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으며, 산수유 나무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이다.
③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는 이 시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④ 청자는 '불평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변화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당부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시의 화자는 산수유나무를 관찰하고 있을 뿐,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이 시는 '-다'라는 평서형 종결 어미의 반복, '산수유나무가~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문장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ㄷ. 시조와 같은 정형시가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시는 자유시로 정해진 형식이나 운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였다.
ㄹ. 음성 상징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는데, 이 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04 〈보기〉는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넓혀 가는 것을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에 비유한 과정을 보여 준다. 이때 산수유나무의 '꽃'으로 인해 가려지는 존재로서 '그늘'이 제시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꽃'과 '그늘'은 동시에 발생하고 함께 넓어져 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05 이 시에서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산수유나무가 꽃을 얻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꽃이 피어나는 데에 따른 산물로서, '다른 생명들이 휴식이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베푸는 공간'을 의미한다.

06 ㉡은 산수유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의 가치를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라고 표현한 것으로, '그늘'이라는 만질 수 없는 추상적 공간을 '좁쌀 다섯 되 무게'라는 감각적(촉각적) 표현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보기〉는 '밤'이라는 추상적 시간 개념을 '허리를 베어, 넣었다가, 펴리라'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냄으로써 구체화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와 동일시하는 것을 감정 이입이라고 한다. 이 시와 〈보기〉에 화자의 감정 이입된 자연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은유법은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연결할 때 '처럼, 같이'와 같은 연결어 없이 직접 연결하는 비유법이다. 이 시에서는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와 같은 구절에서 사용되었으나, 〈보기〉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이 시에서 화자의 정서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보기〉에서는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나 표면에는 밤 시간을 넣어 두고 싶은 화자의 바람만이 나타난다. 따라서 화자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묘사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 시는 그늘이 '노랗다'고 표현하여 색채감을 주고 있지만, 이것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기〉에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색채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07 ⓑ는 다른 생명들이 휴식이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산수유나무가 베푸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 「1」의 의미를 토대로 새롭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안으로 말려들어 간 결과로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행한 상태에 놓일 수 있지만, 산수유나무가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이 좁아지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③ ⓑ는 그늘의 어두움이라는 특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식과 배려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④ ⓑ는 배려 뒤에 숨겨진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과 관련된다.
⑤ 이 시에 어려운 처지를 숨기려는 화자의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08 일반적으로 '그늘'은 어두운 색으로 나타내는데 이 시에서는 산수유나무의 꽃이 노란색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색채어를 통해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고 참신하게 표현하였다.

09 (가)는 산수유나무가 다른 존재를 위해 넓은 그늘을 내어 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나)는 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다른 생명에게 그늘을 내어 주고 마음을 치유하는 자연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른 존재를 보듬고 베푸는 일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는 '봄'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감이 드러나 있으나 (가)에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가)와 (나) 모두 쉽게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가)에서는 '산수유나무'의 이타적인 모습과 '불평만 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대비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상반된 시어의 대비를 찾아볼 수 없다.
④ (가)와 (나) 모두 모순된 이미지의 시어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지 않았다.
⑤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지 않았다.

10 ㉠은 역설법을 사용한 표현이다. 부드러운 꽃에 찔려 마음이 환해지고 선해진다는 모순된 진술을 통해, 겨울이라는 시련을 이겨 낸 봄꽃은 겉으로는 연약하지만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어법, ② 의인법, ③ 과장법, ④ 도치법에 대한 설명이다.

11 (가)의 산수유나무는 다른 생명에게 그늘을 내어 주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나)의 꽃은 다른 존재의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가)의 산수유나무와 (나)의 꽃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태도를 보여 주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1등급 평가 15쪽

01 ② **02** ④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3 [1단계] 그늘 농사의 가치
[2단계]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
[3단계] 이 시는 추상적 대상인 '그늘 농사'의 가치를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라는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1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노랗다'로 표현한 것은 색채어와 시각적 심상을 통해 산수유나무의 꽃이 만든 그늘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구체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언어의 음성적인 요소를 통한 음악성과는 관련이 없다.

02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워 그늘을 드리우는 자연적인 현상을 '농사'라는 능동적 행위의 결과로 그려 내어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각 시행은 대부분 평서형 문장으로 종결되고 있다.
② 검은색, 어두움 등의 속성을 지닌 그늘을 '노랗다'와 같이 낯설게 표현하였으나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③ '불평하는 사람들'이라는 청자를 호명하였으나 화자가 청자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의 처지와 상반된 객관적 상관물은 사용되지 않았다.

03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확인
이 시는 만질 수 없고 무게도 잴 수 없는 '그늘 농사'의 가치라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이 시는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에서 '그늘 농사'의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였다.

◆ 3단계: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그늘'이라는 단어와 이 시에 제시된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설명한 경우	3점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늘'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1점

◆ 감점 피하기 tip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를 언급하지 않을 경우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수치'라는 〈조건〉에 주목하여 해당 시구부터 찾아보도록 한다.

02 서사 갈래와의 만남

카메라와 워커 박완서

내용 확인하기 18~25쪽

1 ② 2 ② 3 ④ 4 ⑤ 5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⑤
11 ③ 12 ③ 13 ① 14 ③ 15 ③ 16 ③ 17 ① 18 ③ 19 기술, 정직, 근면 20 ⑤ 21 ② 22 ⑤ 23 ③ 24 혼란

1 훈이는 '나'와 아무 상의 없이 문과를 선택하였다. 그런데 '나'와 어머니는 훈이가 문과를 택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과로 전과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훈이가 편하고 재미나게 사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나'이다.
③, ⑤ 어머니는 아들(훈이의 아버지)이 문과였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문과를 선택한 훈이의 편을 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가 어머니 앞에서 훈이의 편이 되어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 하지만 결국에는 '나'도 어머니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이과를 권하게 된다.
④ '나'는 훈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게 했다. 담임 선생님이 훈이에게 이과를 권한 것은 아니다.

2 '나'는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이과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이미 문과를 택한 훈이가 이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③ '나'는 '편하고 재미나게' 사는 방법을 생각하고,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등 훈이에게 바라는 삶의 방식을 제시했다.
④ '나'는 훈이가 문과를 선택한 것에 대하여 훈이의 편이 되어 어머니를 위로하고 설득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다.
⑤ '나'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하여 훈이가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훈이에게는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꾸어 말하고 있다.

3 '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은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궁리'를 하는 것이다. 즉 오늘보다 내일 더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아갈 방편을 고민하는 것이다. 반면 '내 이웃은 우거짓국도 못 먹었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배 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것은 자신의 안락함보다 이웃의 안락함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려는 태도와 관련된다. '나'는 이러한 태도를 '바보짓'이라고 칭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 ㉠의 훈이는 한 번도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간 '나'의 말에 직접적으로 반항하지 않고 순응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봤다'는 훈이의 모습을 통해 '나'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생각을 훈이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해 훈이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훈이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고 추측할 만한 근거는 없다.
② 훈이가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훈이의 성격이 다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③ 훈이가 경멸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부분은 '나'의 주관적 느낌에 의한 서술로, 간접 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훈이가 타인을 함부로 경멸하고 무시하는 오만한 성격을 지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훈이가 '나'의 의견을 따르고 있지만 거칠고 대담한 시선을 보냄으로써 '나'에게 무작정 동의하지는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훈이를 주관이 없이 타인의 말에 흔들리는 유약한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5 '나'는 훈이가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일요일이면 카메라를 메고 동부인해서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의 재미 있는 생활을 하길 바란다. '카메라'는 당시에 고가의 물건이었고, 주말에 휴일을 즐기는 것도 일반적인 노동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카메라'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여가를 즐기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상징한다.

6 '나'와 어머니는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 되길 바라지 않고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로 대기업에 붙어 돈도 모으고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따라서 판검사와 같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바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훈이는 거듭된 취업 실패에도 '나'를 원망하는 기색은 조금도 내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③ '나'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기술자',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거듭 강조하며 훈이가 기술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④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물어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부분에서 이전까지 '나'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훈이에게 꾐에 빠져서 데모와 같은 사회 문제에 끼어들었다가는 졸업 후 취직도 못하고 일생을 망치기 십상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7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라)에서는 해외 취업 문제로 훈이와 갈등 상황에서 느끼는 '나'의 심리 상태를 주로 묘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는 '나'이기 때문에 제삼자가 갈등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② (라)에서 훈이의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나'와 훈이의 갈등 원인에는 전쟁 경험과 산업화 시대의 문제라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담겨 있다. 하지만 (라)에서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을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⑤ 어머니의 말을 간접 인용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갈등의 해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8 '나'가 단절감을 느낀 것은 훈이의 말투와 시선을 보고 훈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설명하여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9 '정문'은 정식 취직 시험을 통과하여 취업하는 길인 반면, '뒷문'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인맥을 동원하거나 돈을 주어 취직 자리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본다는 것은 정식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는 훈이의 취직을 위해 인맥, 돈 등의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의미이다.

10 '나'는 훈이를 취업한 곳으로 보낼 때 6개월 뒤 정규직으로 발령 나게 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나'는 훈이를 만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자신이 죽더라도 버스를 탄 까닭이 건설 사장에게 알려져서 훈이가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훈이는 아직 정규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은 힘든 노동 현장에서 일하느라 얼굴이 새카맣게 타 버린 탓에 상대적으로 이가 하얗게 보이는 훈이의 얼굴을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훈이의 순수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훈이의 고단한 삶을 나타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훈이는 살이 빠지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훈이가 힘든 노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수건에서 너무 역한 쉰내가 나서'와 같은 표현을 통해 빨래도 제때 하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훈이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진부로 나오자 손바닥만 한 야경에 휘황해하고 흥분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훈이가 진부까지도 나오지 못할 만큼 바쁘게 일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까운 곳인데도 훈이가 나와 보지 못한 것을 두고 안타깝게 여기며 말한 것이다.

12 퇴근 시간이 넘었는데도 주임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야 하며 야근이 있다는 것, 가까운 곳도 자주 나갈 수 없다는 점 등을 '나'와 훈이의 대화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훈이가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는 상징적 소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일터와 진부로 공간이 변화했지만 그에 따른 인물의 성격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그동안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찾기 어렵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지만 인물 사이의 친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3 훈이의 식욕이 증가한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부에 대한 훈이의 욕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봉급을 받지만 식비와 하숙비를 빼면 몇천 원만 남는다는 훈이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③ 기술직에 해당하는 훈이가 진부에 널린 회사 사람들은 관리직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다방에서 회사 사람들을 보기 싫다고 피하는 부분에서 관리직에 대한 훈이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훈이의 하숙방을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훈이의 처지를 알 수 있다.
⑤ "하여튼 짜식들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악랄하다구."라는 훈이의 말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 '기똥차다'는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나 정도가 높다는 '기막히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회사가 주는 식사가 좋지 않다는 것을 '기똥차다'로 표현한 것은 반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부실한 식사를 하고도 하루 몇십 리씩 산골을 누비는 강도 높은 노동을 소화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5 '나'는 힘든 노동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훈이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무참함과 암담함을 느끼고, 훈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공사판에서 힘들게 일하며 변해 버린 훈이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며, 훈이를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고 있지 않다.

② 훈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무참한 느낌'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훈이가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나, 이로 인해 훈이에게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나'는 훈이의 말을 듣고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심하게 여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16 '나'가 '이놈의 고장 참 고약하더라.'라고 말한 것은 인심이 사납고 물가가 세기 때문이지 악취가 나서가 아니다. 악취가 난 곳은 빨래를 안 하고 청소도 안 해서 더러운 훈이의 하숙방이다.

오답 풀이

① 생소한 업체가 만든 품질이 좋지 않은 비누를 '한 장에 백 원씩이나' 받았다는 내용에서 다른 곳에 비해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우리가 뚫는 영동 고속 도로 인터체인지도 이곳에 생길 테고'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가 들끓는 훈이의 빨래를 하던 '나'가 "세상에 요즈음은 아무리 구더기 밑살같이 사는 집구석이기로서니 이는 없이 살건만 이가 웬일일까."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훈이의 말에 따르면 훈이가 있는 고장은 옥수수가 많이 나는 곳이지만 옥수수 한 자루 얻어먹어 보지 못한 것에 오기가 생겨 돈을 주고 사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

17 '나'의 치하에 대한 주인 여자의 냉담하고 도도한 태도와 옥수수의 고장에서 옥수수 한 자루 얻어먹지 못했다는 사실은 메마른 인심을 보여 준다. 관광 붐이 일고 마을이 개발되면서 산골의 인심은 사라지고 금전만 중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함을 알 수 있다.

18 ⓒ의 '겸사(謙辭)'는 '겸손한 말, 겸손하게 사양함.'을 가리킨다. 한편 '겸사'는 동음이의어로서,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아울러 함.'이라는 의미의 '겸사(兼事)'도 존재한다.

19 기술, 정직, 근면은 '나'가 전쟁 직후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였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기술이 있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열심히 노동하여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20 훈이는 일의 파국을 통해 자신에게 기술자의 안정적인 삶을 강요한 '나'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이고자 한다. 하지만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는 훈이의 말로 볼 때, 스스로 파국이 오도록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정규직이 되고 안정적인 삶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도 바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훈이가 '정문'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자, '나'는 친구의 남편에게 부탁하여 측량 기사 보조 자리를 알아보았고, 6개월만 참으면 정규직으로 발령 나게 해 주겠다고 하며 훈이를 현재 자리에 취업시켰다.

② 훈이는 해외 취업을 원했지만 '나'의 반대로 포기하였다.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훈이의 결정이라기보다 훈이가 기술을 지닌 정규직이 되어 안정적 삶을 꾸리기를 원한 '나'의 바람 때문이다.

③ 훈이는 자신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파국으로 끝날 것을 예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하면서 그 결말을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가 주장한 것들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④ 훈이가 서울로 떠나자는 '나'의 말을 거절하고 이곳에 남기로 한 것은 자신의 일이 '나'의 계획대로 잘 풀릴지 결말을 확인하겠다는 자신의 주체적 의지에 따른 것이다.

21 회사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임시직을 유지시키며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를 두고 회사는 경영 합리화를 내세우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노동 현실이다. 따라서 훈이가 '훌륭'하다고 한 것은 현실을 비판하는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노동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시직만 골라 취업하는 것은 아니다.

③ 회사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기보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임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훈이는 회사의 부조리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을 뿐 회사의 상황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⑤ 회사가 비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며, 훈이가 이를 비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2 오대산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임시직에 머무르며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훈이의 모습을 대비함으로써 훈이가 처한 현실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23 훈이가 영동 고속 도로 건설 사업에 스스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나'가 친구의 남편을 통해 취업을 알아봐서 훈이를 취직시킨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전쟁으로 오빠 부부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뿌리내리기 쉬운 품종으로 키워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자 한 것이다.

②, ④ 기술자로 기르고자 한 것은 훈이의 의사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나'의 생각 때문이다. 이는 생존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훈이가 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술자로 길러 냈지만 기술자는 관리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으며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있었다. 또 훈이는 정규직을 약속 받았지만 임시직에 머무르며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없었다. 따라서 훈이가 처한 열악하고 비극적인 현실은 '나'의 기대가 좌절되었음을 보여 준다.

24 '후회'가 했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면, '혼란'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나'는 훈이를 처음부터 다시 키운다고 해도 무엇을 해야 잘 키울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보다 혼란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27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③

01 훈이는 이과에 진학하여 기술을 토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던 '나'의 뜻대로 결국 기술자로 취업을 하였으나 '나'의 기대와 달리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이는 '나'에게 반발심을 갖고 '나'의 믿음이 부질없음을 보여 주려 하고 있으므로 훈이가 '나'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2 국토 건설 사업으로 영동 고속 도로가 개통될 예정이지만 그 혜택은 훈이와 같은 노동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나'와 훈이의 반응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보상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카메라'는 '나'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을, '워커'는 노동 현실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기성세대인 '나'는 '카메라'로 대표되는 안정적이고 여가를 즐기며 사는 삶을 기대하지만, '워커'로 상징되는 기술직 노동자로서 훈이는 고단한 현실로 인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조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04 '나'는 훈이가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렇게 편하고 재미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훈이에게 이과로 진학을 권하고 취업 자리를 알아봐 준 것이다. 즉 '나'는 훈이를 '사회에 순응하며 여유롭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였다.

소단원 평가 28~33쪽

01 ① 02 ② 03 ⑤ 04 ③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훈이가 말한 '그런 사람'이란 사람은 왜 사는지, 돈은 왜 버는지를 고민하고 이웃의 처지를 살펴보며 사회의 병폐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을 뜻한다. 05 ③ 06 ② 07 ⑤ 08 대기업에 취직해서 결혼도 하고, 주말이면 카메라를 메고 야외로 나가 가족들과 여가를 즐기는 안정적인 삶이다. 09 ② 10 ④ 11 ④ 12 ① 13 전쟁이 사람들의 삶을 흔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회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과 근면, 정직을 강조하며 훈이를 키운 것이다.

01 이 글은 서사 갈래에 속한다. 상연을 전제로 한 것은 극 갈래 중 희곡에 대한 설명이다.

02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작품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갈등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이며, 자신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03 '행여나 그런 데 끼지 마라'는 것은 데모와 같이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흐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즉 훈이가 사회의 병폐에 눈을 돌리지 말고, 자신의 앞가림만 잘 해 나가길 바라는 '나'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자, 나아가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04 '그런 사람'은 '나'의 말 속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은 왜 사는지, 돈을 왜 버는

지 고민하는 사람, '내 이웃은 우거짓국도 못 먹었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배 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짓'을 하는 사람,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나'의 오빠였던 훈이의 아버지가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일들이다. '편하고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05 (다)에 따르면 '나'는 6개월만 참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 생각하여 훈이를 영동 고속 도로 건설 현장으로 보낸 것인데, (라)에서 훈이는 늦은 시간까지 고된 노동을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는 '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오답풀이

① 훈이는 취업난에 처했을 때 해외 취업이라는 자구책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다)와 같이 열악한 노동 현실에 처한 상황에서는 이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지는 않다.

② (마)에서 훈이는 사회적 모순을 지적하지만, 이를 직접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반어적으로 조롱하거나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④ 훈이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나'의 말에 따르는 태도를 취하지만, (마)에서는 회사의 행태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⑤ (마)에서 진부에 나와 빈들대는 관리직들에 대한 훈이의 적대적 태도가 나타날 뿐 부러워하며 닮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06 '나'에게 카메라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여가를 즐기는 삶을 상징한다. 하지만 훈이에게 카메라는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나'가 강요하는 삶의 모습일 뿐이다.

07 훈이가 해외 취업을 생각한 것은 국내에서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해외 취업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는 인력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첫 번째 기사는 이공계 취업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나'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훈이가 쉽게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공계 진학을 권했을 것이다.

② 〈보기〉의 두 번째 기사는 이공계의 취업난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기사와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나'의 계획과 달리 불황이라는 시대적 이슈에 따라 훈이가 취업난에 봉착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의 첫 번째 기사를 보면 이공계 취업률이 높은 편이며, 대학 졸업생들을 각 기업체가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나'는 훈이가 이공계에 진학해 기술을 익히고 대학을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기업에 취업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④ 〈보기〉의 세 번째 기사는 해외 취업의 장점을 다룬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장려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취업은 당시의 구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08 (가)에서 '나'는 훈이에게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색시 얻어 일요일이면 카메라 메고 동부인 해서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다. 이를 통해 '나'가 훈이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

09 '진부'는 서울에서 온 '나'에게는 작은 고장이지만, 깊은 산속에서 온종일 일하고 있는 훈이에게는 일터에서 벗어나 숨통을 트이게 해 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10 ⓐ는 '나'가 훈이를 위해 장만한 것으로, '나'의 뜻에 따라 임시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될 훈이를 격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는 훈이가 고된 노동 현장과 임시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상징한다.

11 (가)에서 훈이는 비록 파국을 통해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놓여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 이곳에서의 일에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12 이 글의 서술자를 '훈이'로 바꿀 경우 훈이는 '나'가 되고, 이 글의 '나'는 고모가 된다. ㉠의 훈이는 고모를 따라 서울로 가지 않고 힘든 노동 현실을 버텨 보려고 한다. 이러한 훈이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는 훈이의 모습이다. 따라서 서술자를 훈이로 바꾼다면 자신의 이러한 단호한 결의가 잘 나타나도록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훈이는 고모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대가 좌절되는 것을 고모에게 보여 줌으로써 자신에게 강요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 훈이는 이곳에 남을 것을 결단하였으며, 고모는 함께 가자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④ 훈이는 고모가 꾸민 일의 결말을 끝까지 보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자유롭게 걸어간다기보다 고모가 원했던 기술직 노동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꾸려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⑤ 훈이가 고모에게 의존하면서 이 고장에서 지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모가 떠난다고 해서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3 '나'와 어머니는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 훈이에게 안정적인 삶을 강요한다. 훈이의 말에서 '나'와 어머니가 기술, 정직, 근면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면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준다고 믿은 것들이다.

1등급 평가 34~35쪽

01 ③ **02** ③ **03** ⑤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3 [1단계] 기술자

[2단계] 가장 무난한 품종, 이과(이공계)

[3단계] '나'는 훈이가 기술자가 되어 시대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 가길 바랐고 그렇게 키웠다. 그래서 '나'는 이과로 전과하기를 권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을 경계하며 기술자로 취업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훈이가 기술자가 되어 만난 노동 현실은 '나'의 기대와 달리 열악하여 안정적인 삶을 꾸려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훈이를 키워 온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다.

01 '나'가 훈이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술하지는 않는다. 훈이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나'의 주관적 감상을 통해 훈이의 생각이나 성격을 독자가 추측하도록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서술자의 심리를 독자가 바로 알 수 있으므로 독자와 서술자 간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② '나'는 기술자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강요하는 문제로 훈이와 갈등을 겪는 한편, '나'의 바람대로 기술직 노동자가 되었으나 기대와 달리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훈이를 보며 내면의 혼란을 함께 느끼고 있다.

④ 전쟁의 경험은 '나'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어 '나'가 안정적인 삶을 훈이에게 강요하게 만들었다. 훈이는 산업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구직자에서 직장인으로 훈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02 〈보기〉에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생활고에 시달려 근검절약이 강요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훈이 역시 저임금과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로서 근검절약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검절약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와 어머니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것, 근면하고 정직한 삶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지배적인 가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노동을 도구로 여기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훈이가 근면에 회의적인 것도 자신의 근면함이 가치 있게 여겨지기보다는 일을 더 많이 시킬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노동의 가치가 중시되었다고 하지만 훈이가 처한 현실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⑤ '나'는 훈이에게 국토 건설 사업에 이바지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라며 말을 건넨다. 이는 훈이의 노동이 가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훈이는 이를 비웃는다.

03 ㉤과 같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실에서도 ㉣처럼 서 있는 모습은 훈이가 열악한 노동 현실을 버티기로 결단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훈이는 여전히 임시직이고 저임금 기술직으로 뿌리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나'의 기대가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는 훈이가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요새 취업이 잘 된다는 이공계에 진학하도록 권한다.

② ㉢에서는 이과를 가기로 하고, ㉥에서는 직장에 남기로 하였으므로 현실에 순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나'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면, ㉥은 서울로 가자는 '나'의 권유를 거절하고 주체적으로 결단한 것이다.

③ '나'는 훈이가 사회에 순응해 이득을 보길 바라고 있었으나, 회사의 노동 착취라는 부정적 현실에 직면함으로써 사회에 순응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로 인해 '나'는 자신이 훈이를 키워 온 방식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④ 훈이는 사회에 순응하며 이공계에 진학하길 바라는 '나'의 계획에 따랐다. 이 과정에서 거듭된 실패를 경험했던 훈이는 ㉡에서 말하듯 그 결과가 '나'의 기대와 같이 안정적인 삶을 획득하는것이 아니라 임시직·저임금 노동에 따른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파국적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이는 '나'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0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확인

ⓐ는 훈이에 대한 '나'의 계획과 기대, 그리고 그것이 빗나갔다는 내용의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나'는 훈이를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기르려고 했다. 하지만 훈이가 그렇게 자라났음에도 산업화 시대의 노동 현실에 부딪혀 낮은 대우를 받는 임시직 기술자로서, 안정적 삶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의 기대가 빗나갔다고 자인한 것이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할 때 비유적인 표현이 담겨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즉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이라는 말을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자, 일반적으로 쉽게 취업을 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공계 진학' 등으로 풀이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나'는 훈이에게 이공계 진학을 권하고,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그러나 기술직 노동자가 된 훈이의 모습을 본 '나'는 이러한 행위가 빗나갔다고 자인하는데, 그 이유가 회사의 횡포와 부당한 노동 현실 때문이며 이로 인해 훈이가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없었다고 판단한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에 쓰인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사실적으로 밝혀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
ⓐ에 쓰인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사실적으로 밝혔지만 〈조건〉 중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한 경우	3
ⓐ에 쓰인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사실적으로 밝혔지만 〈조건〉 중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 비유적 표현을 풀어 쓰지 않고 그대로 서술한 경우에는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점될 수 있다.
- '나'의 행위가 빗나갔다고 여긴 이유를 쓸 때 '훈이가 임시직이어서, 훈이가 돈을 적게 벌어서' 정도의 답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작성한 경우 작성자가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훈이가 기술자가 되면 충분히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훈이는 기술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대가 좌절된 이유에 대해 훈이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03 극 갈래와의 만남

동주 신연식 각본

내용 확인하기 38~47쪽

1 ⑤ 2 ③ 3 ⑤ 4 ② 5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6 ① 7 ③ 8 ① 9 ⑤ 10 ⑤ 11 ① 12 ⑤ 13 ③ 14 문학청년 15 ③ 16 ③ 17 ① 18 ⑤ 19 ⑤ 20 ⑤ 21 ① 22 ① 23 ① 24 서류에 있는 내용대로 독립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25 ③ 26 ③ 27 ③ 28 ④ 29 ⑤ 30 ③

1 이 글은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여 창작된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장면(scene) 단위의 전환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한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현존하지 않는 상상 속 존재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다양한 시공간을 넘나드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간의 제약을 피할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 앞부분 줄거리에서 동주가 몽규에게 연희전문학교로 진학할 것을 제안하여 두 사람이 함께 경성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주가 몽규보다 먼저 연희전문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추천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S# 33 몽규의 대사 중 '이광수, 최남선 같은 변절자들 따라 한 글들은 다 던져 버려.'라는 표현을 볼 때 몽규가 변절자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앞부분 줄거리에서 몽규는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를 찾아갔고,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S# 33에서 동주는 시가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에 충분하고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문학이며, 이런 힘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⑤ 앞부분 줄거리에서 동주는 정지용과 백석의 시를 읽으며 시인을 꿈꾸었다고 하였다.

3 동주는 앞서 몽규가 문예지에서 시를 빼자고 하면서 '인민을 나약한 감상주의로 만드는 건 문학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 순간 불만을 느낀다. 이는 이후의 동주가 '사람 마음속에 살아 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문학'이고 '그런 힘이 하나하나 모여야 세상이 변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계기가 되며, 이를 통해 문학에 대한 동주와 몽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주는 몽규와는 다른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전달하고자 할 것이므로 감독은

동주에게 단호한 표정과 어투로 대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4 S# 33의 동주와 몽규의 대화를 보면 몽규는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기 위해 문예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며 문학을 도구로 여기고 있다. 반면에 동주는 문학을 도구로 보는 것을 비판하며 문학을 통해 인간의 진솔한 내면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힘이 생기고 이러한 힘이 하나하나 모여야 세상이 변한다고 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S# 33의 동주의 대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③ S# 33을 고려하면 동주가 생각하는 문학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인간의 진솔한 내면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거를 반성할 수는 있으나, 문학을 통해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하는 것은 동주보다는 몽규의 생각에 더 가깝다.
⑤ S# 33에서 서구의 유명한 작품을 참고하여 우리만의 문학을 만들자고 이야기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5 S# 34의 내레이션에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라는 「별 헤는 밤」의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야?'라는 여진의 질문에 대한 동주의 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S# 33에서 동주와 몽규는 문예지에 시를 싣는 문제와 문학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등하고 있고, 처중은 그런 긴장감이 넘치는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S# 34에서 여진은 몽규와 동주를 모두 이해하는 입장에서 동주가 몽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을 설명해 주며 둘 사이의 긴장감을 풀어 주려고 한다.

오답 풀이

② S# 33에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는 사람은 동주와 몽규이며, 처중과 여진은 긴장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③ S# 33, S# 34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S# 33, S# 34에서 이미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동주와 몽규의 갈등 상황인데, 이에 대해 처중과 여진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처중과 여진은 동주와 몽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정 인물의 정서에 공감하여 다른 인물을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7 S# 34에서 여진이 동주의 시를 보았다고 했을 때, 동주가 깜짝 놀라는 이유는 자신의 시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동주가 여진이 자신의 시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여진이 동주에게 정지용 선생님께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고 할 때 동주는 수줍어하며 얼버무리다가 여진이 정지용 선생님을 뵙고 싶냐고 다시 물어보았을 때에는 멋쩍게 웃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동주가 정지용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여진은 동주의 시를 보았다고 밝히면서 '난 좋았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여진이 동주의 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여진이 동주에게 정지용 선생님께 같이 인사를 가자고 이야기하거나, 동주의 시가 좋았는데 읽고 나서 왠지 좀 쓸쓸해졌다고 말하고 미소를 띠며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주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⑤ 정지용 선생님에게 인사드리러 같이 가자는 여진의 말에 동주는 '난 아직 등단 작가도 아니고……. (수줍어하며)'라고 반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주가 자신이 등단을 한 정식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8 이 글에서는 극적인 장면에 동주의 내레이션으로 시를 삽입하고 있다. 이러한 삽입 시들은 인물의 감정과 사건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관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여진과 동주가 함께 걷는 밤길 장면에 삽입된 시 「별 헤는 밤」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동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A]는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극적인 상황의 긴박감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③ [A]를 통해 동주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A]에서 동주의 열등감과 관련한 비유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A]에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9 여진은 동주의 시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읽고 나서는 쓸쓸해졌다고 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동주가 느낀 감정을 여진도 비슷하게 느꼈고, 이로 인해 동주의 시에 녹아 있는 쓸쓸하고 적막한 감정에 공감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0 몽규는 동주의 시가 '여자들한테 통할 시'라고 하며 동주에게 시를 본 여진의 반응이 어땠는지 물어본다. 이에 동주가 '읽고 나면 쓸쓸해진다고.'라는 여진의 말을 전하자 몽규는 동주의 시가 여진에게 통했다면서 낄낄거리고 웃는다. 즉, 몽규는 여진도 동주의 시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워하는 동주를 놀리고 있다.

11 이 글의 종류는 시나리오로 같은 장소와 시간 내에서 행동이나 대사가 이루어지는 장면 단위로 내용을 구분한다.

오답 풀이

② 영화의 상영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는 영상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③ 시나리오와 같은 극 갈래는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으며,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사건을 전달하는 것은 주로 소설에서 나타난다.
④ 시나리오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⑤ 관객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연극이나 전통극의 특징이다.

12 S# 36은 여진과 밤길을 걷던 과거(S# 34)에 삽입되었던 시의 뒷부분을 이어서 읊는 동주의 모습을 연출한 장면으로, 동주가 형무소의 독방에서 여진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현재 동주가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있다.

13 S# 38에서 동주는 특고의 취조를 받으면서 특고의 말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동주가 몽규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4 S# 38에서 동주는 자신과 몽규가 문예지를 만들고 활동을 한 것은 문학청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주가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 강조한 단어는 '문학청년'으로 볼 수 있다.

15 S# 39에서 몽규는 임시 정부로 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자신은 대학 생활을 하러 경성에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동주를 따라 온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몽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부모님이 걱정하실 만한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한숨을 쉬거나 '넌 왜 항상 이런 식이냐?'라고 되묻는 것에서 동주는 몽규가 자신에게 임시 정부에 같이 가자고 권하거나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몽규가 동주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말해 주지 않는 것은 동주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④ S# 39에 동주가 몽규와 함께 대학 생활을 즐기기 위해 몽규를 설득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동주는 몽규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몽규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고 있다. 즉 동주는 몽규가 가려는 길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6 S# 40에서 정지용은 동주에게 연전을 다니냐고 묻고 '이제 일본인 교장으로 바뀌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동주가 다니는 학교에 조만간 일본인 교장이 부임하겠지만, 아직은 일본인 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동주의 행동 지시문 가운데 정지용을 긴장한 표정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해 동주가 정지용을 만나면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정지용이 '읽어 봤더니 시인이야.'라고 말하는 부분과 동주에게 일본으로의 유학을 권유하는 부분에서 정지용이 동주의 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지용은 일본에도 좋은 선생이 많으며 자신이 교토에서 보낸 시절이 좋았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정지용은 일본에서의 생활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동주는 정지용에게 창씨개명까지 하면서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17 정지용은 동주에게 지금은 시를 쓸 때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이 미쳐 돌아가고 있으며, 창씨개명을 하여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되는 세상이라고 한탄하고 있다. 즉 정지용이 ㉠과 같이 말한 이유는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하는 어지러운 시대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8 S# 39의 몽규와 동주의 대화, S# 40의 정지용과 동주의 대화를 통해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은 일본이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고칠 것을 강요하는 등 일본의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19 S# 97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동주와 몽규의 모습이 계속 교차된다는 점이다. 특고가 동주와 몽규를 심문하고, 이에 답하는 동주와 몽규의 모습을 교차하여 보여 줌으로써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S# 97은 취조를 당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장면이므로 배경 음악을 활용하기보다는 대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것이 인물들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또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따뜻한 느낌의 배경 음악은 어울리지 않는다.

② 동주와 몽규가 특고의 주장에 결심을 바꾼 것은 아니다.
③ S# 97에서 특고는 자신들이 합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자신의 행위를 의심하고 있지 않다. 또 특고의 말이 내레이션으로 제시된 부분도 S# 97에서 찾을 수 없다.
④ S# 97은 특고에게 취조를 당하는 몽규와 동주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장면으로, 몽규와 동주는 특고에게 명분과 절차의 허위성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저항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희망찬 모습이 드러나도록 연기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동주는 특고가 내세우는 법적 절차의 비인간성과 강압성을 비판하기 위해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동주는 특고의 이러한 행위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동주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③ 동주는 특고의 명분을 앞세운 절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항하고 있을 뿐, 총칼을 앞세우는 것이 합법적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④ 동주는 죽음 앞에서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총부리를 들이대고 서명을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21 S# 97의 동주와 몽규의 상황을 보면 일본은 거짓 서류를 만들어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죄를 묻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 당시에 억울한 조선인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동주는 거짓 서류에 서명을 하라는 특고의 강요에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패전할 것에 대비하여 조작된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특고의 속내를 알아채고 한 말이다.
③ 특고는 동주에게 거짓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대일본 제국은 법치 국가로 체제를 위협하는 너희 같은 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 죄를 묻는다.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차이지.'라고 한다. 또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요식 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요식 행위는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이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문명국에서는 법적 절차를 중시함을 추측할 수 있다.
④ 몽규의 '국제법? 여기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나?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서구 사법 제도를 흉내 내면서 문명이라고 부르는 건가?' 등의 대사를 통해 몽규가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를 합법적이라고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S# 97에서 특고는 동주와 몽규에게 거짓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면서 일본이 문명국이기 때문에 서류에 서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을 진정한 문명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시된 부분만으로는 문명국이 무력을 활용하여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지 알 수 없다.

22 S# 97에서는 동주와 특고, 몽규와 특고가 각각 서류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는 장면을 교차하여 보여 줌으로써 극도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23 '궤변'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思考)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 대는 논법'이다.

24 몽규는 '재일 조선인 유학생들을 규합하여 사상 교육을 시키고'라는 내용이 쓰인 거짓 서류를 보며 '내가 제대로 못 시켜서 부끄럽다.'라며 서명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몽규는 거짓 서류에 작성된 내용을 읽으면서 서류에 있는 내용대로 독립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서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5 S# 100에서 몽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동주의 아버지에게 동주의 죽음에 대해 전하고 있다. 이때 몽규의 아버지가 동주의 죽음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26 몽규는 유골이 되어서도 일본 땅에 남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과 같이 말했다. 이를 통해 일제에 대한 몽규의 저항 의식을 엿볼 수 있다.

27 S# 100, S# 101은 조선의 젊은이인 동주가 억울하게 죽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따라서 이 장면을 영화로 제작할 때는 우울한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등 무겁고 가라앉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두 장면에서 동주 부는 자식을 잃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S# 101의 삽입 시는 장면의 비극성과 동주의 숭고한 정신을 강조할 뿐, 반전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28 ㉡ 앞에 제시된 '인서트(insert)'는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글자, 사진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주 목소리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올 때 글자와 더불어 형무소 창살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 별의 모습 등을 담은 화면들을 삽입하여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29 S# 104에 삽입된 시를 통해 동주의 삶과 신념을 엿볼 수 있지만, 조선이 바로 독립했을 것으로 판단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S# 102는 각혈을 하던 동주가 간수들에 의해 실려 나가는 장면으로, 독방에서 동주가 죽어 갔음을 추측할 수 있다.

② S# 103은 아버지들이 자식, 즉 동주와 몽규의 유골함을 들고 가는 장면이다.

③ S# 100에서 몽규는 '뼛조각 하나도 이 땅에 남아 있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했고, S# 103에서 몽규 부는 바닥에 떨어뜨린 유골을 조심스럽게 골라 담고 있다.

④ S# 104의 내레이션을 통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동주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30 S# 101~S# 104에 제시되어 있는 「서시」는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고 독방에서 동주가 괴로워하는 모습, 동주와 몽규의 유골을 들고 일본을 떠나 고향 마을로 들어서는 아버지들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장면에 삽입된 시 「서시」는 동주의 삶의 의미와 심리를 관객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동주가 시인으로서 인정을 받았음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49쪽

01 ③ **02** ④

01 「동주」는 영화 제작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이다. 작품의 맨 처음에 해설을 통해 인물과 배경 등에 대한 해설을 항상 제시하는 갈래는 희곡이다.

02 동주의 내레이션을 통해 삽입된 「별 헤는 밤」과 「서시」는 관객들에게 주인공인 동주의 감정과 사건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관객의 감정 이입을 돕는 역할을 한다.

소단원 평가 50~55쪽

01 ③ **02** ① **03** ② **04** ② **05** ④ **06** ④ **07** ③ **08** ⑤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홀로 감옥에 갇힌 동주가 여진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동주의 비극적인 상황을 부각한다. **09** ⑤ **10** ② **11** ① **12** ④ **13** ④ **14**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15** ④ **16** ③

01 이 글은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는 카메라 기법, 촬영 기술과 관련된 특수 용어와 지시어 등을 많이 사용하며, 배우들의 행동과 대사 등을 통해 내용이 전개된다. 또한 영상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인물의 수와 시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02 여진이 몽규와 동주의 생각 중에 어느 생각에 더 공감하는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동주는 문학이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문학의 예술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몽규는 문학을 잘못된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는 도구로 여기며 정치 투쟁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몽규의 대사인 '나는 이 문예지를 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어서 문학으로 숨는 거밖에 더 돼?'라는 부분을 통해 몽규가 문예지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④ 동주와 몽규의 갈등이 심화되자 처중은 '둘 다 맞아.'라고 말하며 동주와 몽규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몽규는 이광수와 최남선과 같은 변절자들을 따라 한 글들은 다 던져 버리라고 한다. 따라서 사상이 변한 변절자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03 S# 33에서 몽규와 동주 간의 갈등이 발생하자, 여진은 동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이어지는 S# 34의 ㉠ 앞 부분에서 여진은 동주에게 동주가 시를 사랑하는 것만큼 몽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시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여진이 동주가 몽규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과 말이다. 따라서 동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색해하며' 대답을 하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상 가장 잘 어울린다.

04 S# 34는 동주와 여진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특히 서로 대화를 하며 수줍어하는 동주의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여진의 얼굴 등을 클로즈업을 통해 크게 보여 준다면 둘의 미묘한 감정을 관객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S# 34는 동주와 여진이 함께 밤길을 걷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장면이다. 이때 별빛을 올려다보는 동주가 화면에서 사라지면 극의 흐름이 깨질 수 있다.

③ 동주는 정지용을 만나는 일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다. 오히려 만나고 싶어 한다.

④ S# 34에서 몽규와 여진이 환하게 웃는 모습은 장면 전체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⑤ 각 인물의 얼굴이 서로 번갈아 나오게 할 때에 화면이 어둡다가 점차 밝아지는 페이드 인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A]와 [B]는 각각 동주의 시를 내레이션으로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S# 34는 현재 후쿠오카 형무소에 있는 동주가 과거 여진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A]와 [B]를 통해 동주의 심리와 상황을 관객들에게 비유적·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06 (가)와 (나)는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이고 〈보기〉는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다. 〈보기〉의 '관객들을 향해'에서 알 수 있듯이 희곡에는 등장인물이 객석의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장면이 삽입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는 모두 시나리오와 희곡의 공통점이다.

07 (가)~(다)에 동주가 정지용 선생에게 시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8 S# 36에는 동주가 형무소 독방에 갇혀 있는 모습과 동주의 목소리로 시 「별 헤는 밤」을 읊는 내레이션이 삽입되어 있다. 시의 내용 중 '내 이름 묻힌 언덕'이라는 표현에서 동주가 죽음에 직면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 희생의 의지를 드러낸 표현으로, 동주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S# 34에 삽입된 시에서 화자가 '내 이름자'를 써 보는 것은 자아 성찰의 행위이며, 그것을 흙으로 덮어 버린 것은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S# 35에 삽입된 시에서 '밤'은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레'는 화자가 감정을 이입한 대상으로, '벌레'가 우는 것은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아를 성찰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④ S# 36에 삽입된 시에서 '겨울'은 일제 강점기를, '봄'은 조국의 광복을 가리킨다. 또 '무덤'이 죽음을 가리킨다면 '파란 잔디'는 재생을 의미한다. 화자가 자기의 무덤 위에 풀이 무성할 것이라고 한 것은 화자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09 (나)에서 유골함을 땅에 떨어뜨린 후 다시 쓸어 담는 몽규 부에게 동주 부가 하는 말을 통해 동주와 몽규가 조선 땅이 아니라 일본에서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동주는 송몽규와 함께 일을 꾸몄다는 특고의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서 동주는 몽규와 자신이 문예지를 만든 문학청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특고는 동주에게 서류를 주며 송몽규와 함께 꾸민 일이니 서명을 하라고 한다.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자신들은 문학청년일 뿐이라는 동주의 말에 모든 것은 송몽규의 지시이고 동주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처럼 특고는 동주에게 거짓 서류를 주고 그것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④ (가)에서 특고가 동주의 원고 상자를 만지며 동주를 취조하는 이유는 동주의 시에 일제에 저항하는 사상이 들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0 동주 부와 몽규 부는 자식을 잃고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 ②는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시로, '애기'가 없는 저녁 밥상에 '애기'가 쓰던 은수저 한 쌍이 놓여져 있고, 그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고 표현하며 자식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갈대의 울음(내면)과 외면의 흔들림을 통해 삶의 근원적 고독을 다룬 시이다.

③ 이별에 대한 시이지만, 자식의 죽음과는 관련이 없다.

④ 어제를 동여맸다는 표현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단절이 일어나고 추억마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는 시로, 이별의 상황은 드러나 있으나 자식의 죽음과는 관련이 없다.

⑤ '독'이라는 소재를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저항 의지를 보여 주는 시이다.

11 제시된 부분은 동주와 몽규가 특고에게 취조를 받는 장면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인물의 심리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④ 현실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인물을 시각화하기 위해 가상의 화면을 제시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⑤ 제시된 부분에 성격이 변하는 입체적 성격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

12 몽규의 대사 중 '너희들이 허울 좋은 명분을 항상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나? 열등감 때문이지.'라는 부분을 통해 몽규는 특고가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제시된 부분은 동주와 몽규가 특고에게 취조받는 모습을 교차로 편집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장면은 '서류를 몽규 앞에 던지는 특고 →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 특고를 바라보는 몽규 →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 특고를 바라보는 몽규 → 서류를 보는 동주 → 서류를 보는 몽규'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취조 상황에서 동주와 특고, 몽규와 특고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연결하여 급격하게 번

갈아가며 제시함으로써 이야기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어 상황과 관련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편집 기법을 통해 관객은 동주와 몽규 각각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인물들의 감정과 반응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 또 이야기에 더욱 흥미를 갖고 몰입할 수 있게 된다.

14 동주는 일본이 패전할 것을 대비하여 동주와 몽규가 군대 내에서 무장봉기를 계획했다는 죄명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조작된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특고의 속내를 알아채고 특고에게 질문을 하였다.

15 ㉠ '명분'은 일제가 겉으로 문명국이 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 낸 것이며, ㉡ '사실' 역시 일제가 사실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거짓 내용으로 조선인 청년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6 〈보기〉에서 몽규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며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몽규가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서류의 내용을 실천하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행동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몽규가 자신이 생각했던 일들을 실제로 하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 거짓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등급 평가 56~57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③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5 [1단계] 심리(또는 정서), 신념(의지)
[2단계] 형무소, 의지
[3단계] 시를 삽입함으로써 형무소 독방에 갇혀 고통받았지만 일본의 탄압에도 신념과 의지를 꺾지 않은 동주의 숭고한 정신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01 (가)에서 몽규는 임시 정부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데 책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집을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몽규는 임시 정부에 가서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02 ㉠의 앞의 내용을 보면 동주는 자신에게 자세한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떠나려는 몽규에게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의 뒷부분에서 몽규의 '넌 여기 있어야지.'라는 대사로 볼 때 동주가 몽규에게 왜 같이 가자고 하지 않는지 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03 〈보기〉에서 「동주」 속 주인공인 동주와 몽규는 실존했던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특고라는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몽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거짓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 이런 장면에서 청년의 이상과 좌절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② (다)에서 동주의 죽음을 확인한 동주 부와 몽규 부는 오열을 하고 있다. 동주의 죽음은 일본의 폭력적인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몽규는 거짓 서류에 서명을 하는 선택을, 동주는 서명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였다.
④ 일본의 거짓과 폭력이라는 암울하고 불안한 시대적 상황들을 (나)에 드러난 특고의 행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4 이 글에서 동주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라)에서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동주의 내레이션을 바탕으로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장면을 삽입한 것은 동주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특고의 강요에 대한 동주와 몽규의 서로 다른 선택을 교차하여 편집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동주와 몽규의 감정과 반응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관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몰입감을 높이고 있다.
② 「서시」를 동주의 내레이션으로 삽입함으로써 일제 강점기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지향한 동주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④ (마)에서는 내레이션을 극의 끝까지 제시하여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 동주의 숭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마)의 내레이션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끝을 맺고 있고, 장면도 '언덕 위로 밤이 찾아오며 별이 빛난다.'라고 마무리되고 있다. 이처럼 시의 내용과 장면의 마무리 모두 '별이 빛나는 모습'으로 끝이 났다.

05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확인**
동주의 목소리로 읊은 시를 내레이션으로 영화에 삽입하는 표현 방식은 동주의 심리를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동주의 삶과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서시」에는 동주의 심리, 특히 동주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드러나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나)를 고려하면 동주는 억울하게 형무소에 갇혀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화자인 동주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순수한 삶을 살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갖고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동주가 처한 상황(형무소에 억울하게 갇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과 시를 삽입한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5
동주가 처한 상황(형무소에 억울하게 갇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과 시를 삽입한 이유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3
동주가 처한 상황(형무소에 억울하게 갇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과 시를 삽입한 이유 모두 미흡하게 설명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조건〉에서 동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라고 했으므로 동주가 억울하게 형무소에 갇혀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 글에서 삽입 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동주의 심리는 어떠했는지를 파악하여 설명해야 한다.

04 교술 갈래와의 만남

풀 비린내에 대하여 나희덕

내용 확인하기 60~61쪽

1 ① 2 ② 3 ④ 4 ② 5 ①

1 이 글은 글쓴이가 개인적 경험에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특정한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쓴 수필이다.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쓰는 자유로운 산문이기 때문에 특정한 형식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은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 자동차를 휴식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이는 자동차의 재활용을 통하여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 주고 글쓴이로 하여금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글쓴이는 고속 도로를 달린 다음 날 아침, 자동차에 붙은 풀벌레들의 잔해를 보고는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가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다고 표현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가 늦은 밤에 운전을 할 때 차체에 부딪힌 것은 모래 알갱이가 아니라 풀벌레들이었다.
② 글쓴이가 고속 도로를 달릴 때 차에 흙먼지들이 묻은 것이 아니라 풀벌레들이 죽어 잔해로 엉겨 붙었다.
③ 글쓴이는 풀벌레들의 죽은 잔해를 보고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간 것이지, 세차장에서 도망친 것은 아니다.
⑤ 글쓴이는 밤에 고속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험을 통해 자동차 운전으로 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을 뿐, 이러한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4 ⓐ '푸르죽죽한 것들', ⓒ '죽은 잔해', ⓔ '풀 비린내'는 모두 ⓓ '풀벌레들의 흔적'이다. ⓑ '흙먼지'는 글쓴이가 차에 붙은 것으로 착각한 소재이다.

5 글쓴이는 자동차를 운전했던 자신의 경험과 옛날 티베트 승려들의 말을 언급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62쪽

01 ③ 02 ②

01 교술 갈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글쓴이의 경험과 사색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양식이다. 하위 갈래로 일기, 기행문, 수필, 편지 등이 있다. 교술 갈래 중 주로 사회적, 학문적, 철학적 문제와 같은 무거운 소재를 다루는 수필을 중수필이라고 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 글쓴이의 체험과 인상 등 가벼운 소재를 다룬 수필을 경수필이라고 한다.

02 〈보기〉의 글쓴이는 시속 10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에 풀벌레들이 짓이겨진 것을 보고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이러한 살상의 경험은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생명을 해친 경험으로, 글쓴이가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게 된 계기이다.

소단원 평가 63~66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①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은 글쓴이가 서울로 가는 고속 도로를 왕복한 후, 수많은 풀벌레들이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를 본 경험을 의미한다. 05 풀 비린내 06 ② 07 ⑤ 08 ③ 09 ② 10 ③ 11 ①

01 이 글은 수필이다. 수필은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글쓴이가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자유롭게 쓴 산문 형식의 글이다.

오답 풀이
①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특정한 서술자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는 양식은 소설이다.
② 수필은 고정된 틀을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다.
③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을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은 중수필의 특징이지만,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지는 않는다.
⑤ 함축적인 언어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정서와 감정을 운율감이 드러나도록 전달하는 양식은 시이다.

02 이 글의 글쓴이는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지만 마음이 답답할 때 교외로 나가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 실제적인 목적 없이 차를 모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다. 글쓴이가 고속 도로를 달린 다음 날 차에서 죽은 풀벌레들의 잔해를 발견한 이후에도 차를 자주 몰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초보인 당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② 글쓴이는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꾸쏠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이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고 하였다.
③ 글쓴이는 객지로 이사한 이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지만 이후에는 목적 없이 차를 모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다.
⑤ 글쓴이는 식구들을 태우고 고속 도로를 달릴 때 차창에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을 두고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튄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하였다.

03 글쓴이는 '감성적 기계', 즉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동차의 편안함을 경계하고 있다. 또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 것의 줄다리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의 편안함에 종속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04 뒷부분의 내용을 고려하면 ㉠은 글쓴이가 서울로 가는 고속 도로를 왕복한 후 자동차의 유리창은 물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풀벌레들의 죽은 잔해가 잔뜩 엉겨 있는 것을 본 경험을 의미한다.

05 글쓴이는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에 수많은 풀벌레가 부딪쳐 죽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글쓴이는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에서 나는 냄새를 '풀 비린내'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자동차로 대표되는 문명의 이기에 의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 생명체, 즉 자연의 처참한 모습을 후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글쓴이는 이를 맡은 후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06 글쓴이는 자신이 운전을 하는 행위로 풀벌레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지니고 있다. 그로 인해 글쓴이는 손을 씻고 또 씻으며 살생 행위를 했다는 기억을 지워 죄책감을 덜고자 한 것이다.

07 (가)에서 글쓴이는 자동차라는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

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글쓴이는 차를 없앨 수 없는 형편이며, 운전하는 것 자체가 살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을 계속하는 한 생명의 소중함과 관련한 생태적인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08 (나)의 인터뷰 내용을 고려하면 글쓴이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생태주의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은 화자의 자연에 대한 사랑과, 자연과 하나가 된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나타낸 시조이다.

오답 풀이

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료'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현실에 순응하며 살자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임과 헤어진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다 조물주의 탓이라면서 운명론적 사고관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드러낸 시조이다.
⑤ 국화로 상징되는 선비의 높은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시조이다.

09 (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글쓴이는 생태주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글쓴이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삶, 인간이 아닌 존재들을 위한 글을 쓰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10 글쓴이는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자신도 모르게 풀벌레들을 죽이는 살생의 경험을 하였다. 이로 인해 글쓴이는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인 자동차가 다른 소중한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차를 소유하되 그것에 종속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다.

11 문맥을 고려하면 ⓐ '남았고'는 '잊히지 않거나 뒤에까지 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하게 쓰인 것은 ①의 '남았다'이다.

오답 풀이

② '다른 사람과 함께 떠나지 않고 있던 그대로 있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④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순에 이르지 않아 나머지가 있게 된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나눗셈에서, 나누어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얼마 있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1등급 평가 67쪽

01 ⑤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2 [1단계] 살상(살생)
[2단계] 안락한
[3단계]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성찰과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

01 〈보기〉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성북동의 산에 인간의 유물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살던 비둘기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현실을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보기〉 속 성북동의 비둘기들은 주민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듯 하늘을 돌며 인간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 (A)가 성북동의 비둘기로 대표되는 자연이 인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02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확인**
글쓴이는 풀벌레들이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를 본 경험을 통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자연을 파괴하고 살생을 저지를 수 있는 행위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글쓴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체에 부딪친 풀벌레들의 죽음을 목격한 후, 인간에게 안락하고 유용한 도구인 자동차가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자연의 파괴, 자동차의 활용이라는 키워드를 모두 적절하게 활용한 경우	3
자연의 파괴, 자동차의 활용이라는 키워드 중 한 가지만 활용한 경우	2
자연의 파괴, 자동차의 활용이라는 키워드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글쓴이는 자동차가 인간에게는 안락함을 주는 도구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글쓴이가 차체에 부딪친 풀벌레들의 죽음을 본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적절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대단원 평가 68~73쪽

01 ① 02 ④ 03 ③ 04 ④ 05 ① 06 ⑤ 07 ⓐ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삶을 의미한다. 08 ② 09 ③ 10 ③ 11 ⑤ 12 ③ 13 ⑤ 14 실천(실행), 시인 15 ⑤ 16 ② 17 ①

01 (가)에서는 꽃을 피우며 그늘을 넓히는 산수유나무를 활용하여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이라는 주제를, (나)에서는 하늘, 잎새, 바람, 별 등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잃지 않는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나)에는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정서나 시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의 정서가 변하지도 않는다.
⑤ (가)에서는 '산수유나무'라는 시어와 종결 어미 '-다'의 반복이, (나)에서도 종결 어미 '-다'의 반복이 나타나지만 형식이나 내용을 점차 더하여 그 뜻이 확대되고 고조되게 하는 점층법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2 ㉠'산수유나무'는 (가)의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와 미덕을 베푸는 이타적인 존재이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미생물과 같은 작은 생명체를 배려하는 존재들로, 미물일지라도 생명이 있는 존재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처럼 ㉠과 ㉡은 모두 다른 존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03 (나)의 화자는 부끄럽지 않은 삶,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4행에서는 '괴로워했다'라는 시어로 보아 과거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5~8행에서는 '걸어가야겠다'라는 시어를 통해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9행의 '오늘', '스치운다'라는 시어에 현재의 어두운 상황과 그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즉, (나)는 '과거-미래-현재'의 시간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과거-현재-미래'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그늘을 만들어 낸다면서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을 넓혀 가는 산수유나무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② (가)에서는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인간)들과 그늘을 만들어 내는 산수유나무(자연)의 모습을 대조하여 타인에게 인색해져 가는 현실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④ (나)에서 '하늘'은 절대적 대상을, '바람'은 갈등, 시련, 고난을, '밤'은 어두운 현실, 일제 강점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로, 이를 통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순수하고 결백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⑤ (다)에서는 '풀 비린내'와 '피비린내'라는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라는 글쓴이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04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의 시선에서 내면의 갈등이나 감정 변화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다.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을 관찰하고 인물의 생각을 추측하는 것은 작가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다.
③ 작품 속의 서술자가 주인공인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추측하여 전달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다.
⑤ 작품 속의 서술자가 사건의 전모와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상세하게 전달하는 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05 (가)와 (다)에서 훈이는 '나'의 조언을 듣고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봤다고 했다. 이를 통해 훈이는 '나'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06 ㉤'경멸'의 사전적 의미는 '깔보아 업신여김.'이다.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김.'은 '경시'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

07 문과보다 이과가 더 취업이 잘 되고 먹고살기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나'는 (가)와 (다)에서 대기업에 취업하여 돈도 잘 벌고, 예쁜 아내를 얻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카메라를 메고 부인과 함께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훈이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카메라'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8 (가)의 훈이와 '나'의 대화에서 훈이는 더 비참해지고 싶으며 그것을 '나'와 할머니에게 보여 주고 싶다고 한다. 이에 '나'는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는데 이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나'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건의 결말을 추측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가)~(라)에는 등장인물의 무의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라)에는 잦은 장면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라)에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09 ㉢에서 훈이는 비록 현실은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나'가 계획한 것처럼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함을 언급하고 있을 뿐, '나'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을 통해 훈이가 고모와 할머니가 강요한 기술, 정직, 근면이라는 삶의 가치가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훈이는 나름대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④ ㉣에서 '나'는 훈이의 '웃기네.'라는 발언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을 통해 '나'는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무난한 품종으로 훈이를 키우려고 노력해 왔으나 현재 훈이의 처지를 본 후 자신이 훈이를 키워 온 방식이 맞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0 ⓐ '워커'는 훈이가 영동 고속 도로 공사 과정에서 일하면서 신는 신발로,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상징한다. (다)의 '훈이가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는 묘사를 통해 ⓐ '워커'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감당하며 살겠다는 훈이의 의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 소재임을 알 수 있다.

11 (가)는 소설이고 (나)는 시나리오이다. (나)에만 등장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이 '한숨을 쉬며' 등과 같이 현재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가 사건을 전달하고 있는 반면, (나)에는 사건을 전달해 주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나)는 영화의 상영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팬 다운'과 같은 카메라 기법이나 촬영 기술과 관련된 특수 용어와 지시어 등이 사용된다.
③, ④ (가)에서는 '나'와 녀석(훈이)의 갈등이, (나)에서는 '동주'와 '몽규'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 있다.

12 〈보기〉에서 이 글에는 문학을 통한 세상의 이해에 관한 송몽규와 윤동주의 견해가 드러나 있다고 하였으며, (나)에 이와 관련한 두 인물의 대립이 제시되어 있다. (나)에서 몽규는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고자 문예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동주는 사람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문학이 온전하게 힘을 낼 수 있다면서 그런 힘이 모였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몽규는 문학을 통해 부정적인 규정, 관습, 제도를 깨트리고자 하지만 동주는 문학이 그 자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문학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답 풀이
① 몽규와 동주는 문학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대립하고 있다.
② (나)에 동주가 현실에 직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몽규는 문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을 이루고자 하지만, 동주는 몽규의 관점은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⑤ 동주가 관습과 이념 타파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13 (가)에는 형무소의 독방에 갇힌 동주가 내레이션으로 시를 읊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이 시의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이라는 구절을 통해 동주가 암울한 일제 강점기(겨울)가 지나고 '봄'으로 상징되는 조국의 독립이 올 것을 기대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특고는 동주와 몽규에게 거짓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할 뿐이다. (가)~(다)를 통해 특고가 몽규가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② (나)를 통해 몽규는 거짓 서류에 적힌 대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동주는 특고에게 전쟁 이후가 두려운 것이냐고 질문한다.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명분이 없는 전쟁의 패배를 두려워한 사람은 동주가 아니라 특고이다.
④ (나)를 고려하면 몽규는 서류에 적힌 대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서명을 한 것이다.

14 (나)에서 몽규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못 해서 한스럽다.'라면서 서류에 적힌 대로 독립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거짓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반면에 동주는 (다)에서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길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던 게 부끄럽'다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서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거짓 서류에 서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15 (나)에서 특고가 동주와 몽규를 심문하는 과정을 교차 편집함으로써 각 인물들이 일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는 두 인물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영상을 흑백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물의 표정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배경을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가)~(다)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등장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면 미세한 표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인물의 심리를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④ (가)에는 동주의 내레이션으로 시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주인공의 심리를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관객의 감정 이입을 돕는다. 하지만 〈보기〉에 따르면 이를 통해 문학성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가)에서 글쓴이는 「감성적 기계」라는 예술 작품이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 주고 자신에게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티베트의 승려들이 운전을 하는지는 이 글의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③ (마)에서 글쓴이가 생태적인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은 운전이 살생 행위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 생태적인 발언을 금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시속 10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는 글쓴이가 빠른 속도로 달렸을 때 풀벌레가 죽을 수도 있음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⑤ 운전하는 사람들이 모두 살상의 경험으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

17 이 글의 글쓴이는 자동차 운전을 한 후 자신도 모르게 풀벌레들을 죽인 경험을 통해 운전이 살생 행위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글쓴이는 자동차를 소유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2 따뜻한 말과 글

01 공감하며 소통하기

내용 확인하기 78~80쪽

1 ③ 2 ③ 3 ④ 4 ⑤ 5 ⑤ 6 ① 7 ① 8 ③ 9 ③

1 '준석이 네가 평소에 진로에 관한 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 책 좀 읽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화자 자신이 아니라 대화 상대인 준석이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이야기이다. 대화할 때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화의 원리를 체면 유지의 원리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④ ㉮는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으로, 공손성의 원리 중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리는 찬동의 격률을 적용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다.
②, ⑤ ㉯는 모둠 발표 주제를 정하는 상황에서 '매점이나 갈까?'라며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대화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2 태도의 격률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협력의 원리에 해당한다.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격률이 아니다.

3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격률은 대화할 때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① 겸양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② 찬동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③ 동의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⑤ 관용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4 체면 유지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들이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원리에는 적극적 예의 전략과 소극적 예의 전략이 있다.

5 우리가 속한 담화 공동체의 담화 관습에는 대화할 때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에 관한 칭찬을 줄이고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는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이 있다. 따라서 자신을 높이며 대화하는 것은 우리말의 담화 관습과 거리가 멀다.

6 우리말에서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하거나 '죽다'를 '돌아가다'로 표현하는 이유는 완곡하게 돌려 부드럽게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담화 관습을 '돌려 말하는 관습'이라고 한다.

7 김 선생은 채소뿐인 술상과 마당에 있는 닭들을 보고 벗이 자신을 푸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은 이러한 벗의 태도를 꼬집기 위한 말로,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돌려 말하는 관습이 담겨 있다.

8 우리 공동체의 대화 관습 중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은 대화할 때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에 관한 칭찬을 줄이고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는 것이다. 〈보기〉의 할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지만 차린 게 없다며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9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라는 속담은 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이나 모든 일이 잘 안된다는 말이다. 이는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과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신중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81~82쪽

01 ④ 02 ② 03 체면 유지의 원리 04 ⑤ 05 ⑤ 06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

01 공손성의 원리란 서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공손성의 원리에는 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률, 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의 격률이 있다. 이 중 관용의 격률에 따르면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려 대화해야 한다.

02 협력의 원리 중 '질의 격률'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03 〈보기〉는 대화의 원리 중 '체면 유지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4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은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과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어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는 것은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이다.

05 돌려 말하는 관습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돌려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① 우리가 속한 담화 공동체의 관습으로 보기 어렵다.
②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는 것은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이다.
③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은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말의 담화 관습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니다.
④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하는 것은 우리말의 담화 관습 중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에 해당한다.

06 〈보기〉의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와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는 속담이다. 이는 우리말 담화 공동체의 담화 관습 중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 관련이 있다.

소단원 평가 83~86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② **05** ① **06** ② **07** ② **08** ③ **09** ② **10** ④ **11** ⑤ **12** ⑤ **13** ③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사람들의 인식과 같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14** ⑤

01 태도의 격률은 협력의 원리에 해당하는 원칙으로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타당한 근거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협력의 원리 중 질의 격률에 대한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양의 격률과 질의 격률은 모두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②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한다는 체면 유지의 원리에는 적극적 예의 전략과 소극적 예의 전략이 있다.
③ 관용의 격률은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리는 것이다.
⑤ 대화 참여자 모두 자신에 대한 칭찬을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겸양의 격률을 지켜 대화한다면 서로 예의를 갖춰 공손하게 대화할 수 있다.

02 대화 참여자는 원활한 대화를 위해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대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양의 격률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대화를 할 때에는 한 단어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를 태도의 격률이라고 한다.
③ 체면 유지의 원리에 따라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한다.
④ 동의의 격률에 따라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서 공통점은 늘리고 차이점은 줄여야 한다.
⑤ 요령의 격률에 따라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려야 한다.

03 지은은 윤희가 언급한 모둠 발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난 이야기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04 (다)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욕구가 있는데, 재훈은 상대의 이러한 욕구를 무시한 채 예의를 갖추지 않고 준석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05 〈보기〉의 이현은 '한심하다. 실력 없는 애들이나 긴장하는 거라고.'라며 상대인 윤희를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손성의 원리 중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려야 한다는 찬동의 격률을 어긴 표현이다. 그러므로 찬동의 격률을 적용하여 상대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가)에서 B는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라는 A의 말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다. 즉, B는 협력의 원리 중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07 (나)에서 A가 '난 버스를 탈 건데, 넌 어떻게 집에 갈 거야?'라며 B에게 집으로 가는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하였으나 B는 책방에 들렀다 간다거나 지하철에 사람이 많다는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제공하며 대답하고 있다. 즉 (나)의 B는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고려하여 〈보기〉와 같이 필요한 정보만 추려 고쳐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8 (다)에서 A는 B에게 자신의 짐을 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표현으로 B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A에게는 체면 유지의 원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 있게 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담화 관습은 우리가 속한 담화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고유하게 형성된 담화 사용의 규칙이나 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담화 관습은 개인의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가치와 좀 더 관련이 있다.

10 ㉠ '삼사일언(三思一言)'은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는 뜻으로, 말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한 후에 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며, ㉡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라는 속담은 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이나 모든 일이 잘 안된다는 의미로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이 나타나 있다. ㉢ '죽다'를 '돌아가다'로 표현한 것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 부드럽게 표현한 것으로 돌려 말하는 관습이 나타나 있다.

11 (나)의 김 선생은 손님으로 온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벗에게 자신의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라고 하였다. 이는 벗에게 닭을 잡아 안주로 삼자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완곡하게 돌려 말한 것이다. 김 선생의 이러한 말 속에는 돌려 말하기 관습이 드러나 있으며, 김 선생은 이를 통해 상대인 벗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였다.

12 ⓐ에서 할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상을 차려 왔지만 차린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을 반영한 것이다.

13 우리말 연구가는 소중한 언어 유산이라도 차별적 인식이 담긴 속담들은 비판적인 인식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4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학부형'이라는 말이 '학부모'로 바뀌었다. 이와 유사하게 엄지손가락만 따로 가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함께 끼게 되어 있는 장갑을 가리키는 '벙어리장갑'이라는 표현은 그 안에 차별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어 요즘에는 '엄지장갑' 또는 '손모아장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오답 풀이

①, ② '변소'를 '화장실'로, '죽다'를 '돌아가다'로 표현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말할 때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관습이 드러난 예이다.

③, ④ '크루'를 '모임' 혹은 '동료'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이유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서이다.

1등급 평가 87쪽

01 ④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2 [1단계] 벙어리, 시집살이

[2단계] 차별, 비판

[3단계] 제시된 속담에는 '귀머거리'와 '벙어리'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시집살이가 어렵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담을 비판적 인식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해야 한다.

01 〈보기〉의 A와 B는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하는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A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해야 한다는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B에게 짐을 들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B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으로 요령의 격률에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B가 아닌 A이다.

오답 풀이

①, ③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욕구가 있으므로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한다는 대화의 원리를 체면 유지의 원리라고 한다. 〈보기〉의 A와 B 모두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대화를 하였다.

②, ⑤ 대화의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란 서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의 A와 B 모두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대화를 하였으며, 특히 A는 공손성의 원리 중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려야 한다는 요령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

02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확인

제시된 속담에는 차별적 인식이 담겨 있다. 귀머거리는 청각 장애인을,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 2단계: 〈조건〉의 확인 및 적용

'귀머거리'와 '벙어리' 모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담긴 표현이다. 또 의미적인 측면에서 시집살이의 어려움이라는 시집살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제시된 속담에 드러난 차별적 인식이 담긴 표현과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 표현을 정확히 언급하고,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5
제시된 속담에 드러난 차별적 인식이 담긴 표현과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 표현을 정확히 언급하였으나,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제시된 속담에 드러난 차별적 인식이 담긴 표현과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 표현 중 하나만 정확히 언급하고,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출제 의도상 제시된 속담에 드러나 있는 차별적 표현이나 내용이 담고 있는 부정적 인식보다 바람직한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속담을 사용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도록 한다.

02 함께하는 국어생활

진정한 소통의 시작

내용 확인하기 89~90쪽

1① 2⑤ 3① 4③ 5② 6②

1 이 글의 글쓴이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강의를 한다고 했으며, 한국 가요나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과 한국인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사는 결혼 이민자 모두를 가르친다고 했다.

2 글쓴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이다. 글쓴이를 바라보던 '저마다 다른 색색의 눈동자들'은 다양한 색깔의 눈동자를 가진, 즉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찾아온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외국인들을 가리킨다.

3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친족어, 호칭어, 높임 표현에 대해 질문을 한다고 하였다.

4 이 글의 글쓴이는 한국어로 소통하는 사람들도 지역, 세대, 성, 문화 등 각자 속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와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5 이 글의 글쓴이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 다른 상대의 모습을 편견 없이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강조했다.

오답 풀이

① 내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지 않은 공동체 모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라고 하였다.

③, 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종류를 파악하거나,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소통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등은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④ 상대와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지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와 다른 상대의 모습을 편견 없이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6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담화 사용의 규칙이나 태도, 즉 담화 관습을 가진 다양한 언어 공동체가 존재한다. 이 글은 상대와 원활하게 의

사소통을 하려면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른 언어 공동체와의 바람직한 소통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91쪽

01 ① 02 ④

01 언어 공동체란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사회 집단을 가리킨다.

02 한국 가요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은 주로 한국의 젊은 세대들과 대화할 상황이 많은 반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은 주로 가족 구성원인 한국인들과 대화를 하므로 한국어의 다양한 친족어와 높임 표현을 이해해야 할 상황이 많다. 이들은 자신이 대화할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므로 주로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궁금해하는 점이 달라지게 된다.

소단원 평가 92~94쪽

01 ② 02 ⑤ 03 ②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대화 상대가 속한 공동체와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04 한국인인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05 ② 06 ③ 07 ⑤ 08 ④ 09 ① 10 ③ 11 ④ 12 ② 13 ④

01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가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사는 결혼 이민자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같은 한국어를 배우더라도 배우고 싶은 담화 내용과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화제를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동일하지만 한국어에 관해 궁금해하는 점이 다른 까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 문제 상황의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은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에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는 상반된 이론을 절충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어떤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은 나와 있지 않다.

02 글쓴이는 우리 사회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공동체 모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라고 하였다.

03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고유하게 형성된 것이므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지역, 세대, 성, 문화 등에 따른 다양한 언어 공동체가 존재한다.
③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한 상대와 소통할 때에는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
④ 한국의 10대와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따로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언어 공동체에 속하느냐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⑤ 외국인이 한국어의 높임 표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예의가 없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가 살아온 과정이나 처한 상황이 다양하므로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해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04 결혼 이민자들은 가족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인과 대화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려고 가족 문화에 관한 어휘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다.

05 '부추'를 경상도에서 '정구지', 전라도에서는 '솔'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역에 따른 각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의 차이를 나타낸다.

06 민지는 할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생선', '취저'와 같은 축약된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를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생선'은 '생일 선물', '취저'는 '취향 저격'의 줄임말이다.

07 (가)는 지역에 따라 같은 사물을 다르게 표현하는 사례이고 (나)는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을 보여 주는 사례로, 모두 특정 집단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사용한 예이다. 이처럼 특정 집단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사용할 경우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구성원 간의 결속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 씨의 고향에서는 존중의 의미로 가장 나중에 뜬 따뜻한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손님에게 가장 먼저 음식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 이처럼 ○○○ 씨의 고향과 우리나라의 문화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09 ㉠은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상대가 그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 표현이다. 사회 내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며 상호 작용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다른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10 (가)의 글쓴이는 스스로가 음식을 잘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남한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같은 강의를 듣고도 친구들과 다른 음식을 만들게 되었다.

11 '일없다'는 남한에서는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만 북한에서는 '별일 없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형태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북한 사람이 이러한 표현을 남한 사람에게 사용했을 경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미안하다'는 남한과 북한에서 형태와 의미가 유사한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소행'은 남한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아름다운 소행'처럼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② '바쁘다'는 남한에서는 '겨를이 없다'의 의미지만 북한에서는 '힘들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③ '까지다'는 남한에서는 '되바라졌다'의 의미지만 북한에서는 '(살이) 빠졌다'의 의미로 쓰인다.
⑤ '극성스럽다'는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일 솜씨가 어찌나 극성스럽고 빨랐던지.'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12 남한과 북한에서는 같은 어휘도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언어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3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편리할 수도 있지만 가상 공간을 잘 이용하지 않는 언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가상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④는 바람직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

1등급 평가 95쪽

01 ④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2 [1단계] 부정적, 긍정적
[2단계] 지역, 상대
[3단계] ㉠~㉢은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면 대화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에 따라 ㉠~㉢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을 하는 상대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를 고려하여 같은 형태의 단어라도 의미가 다르게 쓰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해당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지를 고려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01 (가)에서 반어적 표현을 활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민들레 씨앗의 솜털처럼'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제주도에서 들었던 사투리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작년에 제주도를 여행했을 때의 일이라는 점을 밝히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아주머니와 할아버지의 말, 2문단에서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③ 3문단의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에서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⑤ 3문단의 '각 언어 공동체의 사람들이 원활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 표현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에서 글쓴이가 깨달은 점을 일반화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2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확인
• ㉠'요망지다'는 제주도에서는 '똑똑하고 야무지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보통 '요망하다'는 '간사하고 영악하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 ㉡'살이 쪘다'는 남한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지만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일없다'는 남한에서는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가벼운 사양이나 '괜찮다'의 의미로 쓰인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요망지다', ㉡'살이 쪘다', ㉢'일없다' 모두 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상대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상황에 따라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를 고려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의 공통점을 알맞게 쓰고, 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두 알맞게 쓴 경우	5
㉠~㉢의 공통점과 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때의 문제점은 알맞게 썼으나 해결 방안은 알맞게 쓰지 못한 경우	3
㉠~㉢의 공통점, 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때의 문제점, 해결 방안 가운데 한 가지만 알맞게 쓴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출제 의도상 ㉠~㉢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보다 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다른 지역 사람들 간에 특정한 지역 방언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평소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대단원 평가 96~101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⑤ 05 ③ 06 ⑤ 07 ⑤ 08 ③ 09 ④ 10 ⑤ 11 ① 12 예전에는 학교 방문과 같은 바깥일은 아버지나 형이 챙겼기 때문에 학생의 보호자를 이를 때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의 '학부형'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시대가 변하여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학부형'이라는 남녀 차별적 표현을 이제는 '학부모'라는 말로 고쳐 사용한다. 13 ④ 14 ⑤ 15 ④ 16 ③ 17 ② 18 ④ 19 ③ 20 ①

01 대화의 원리 가운데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체면 유지의 원리라 하고,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협력의 원리라 한다. 이 글에서는 대화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을 뿐,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해야 하는 것을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

② 대화의 원리란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간에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③ 체면 유지의 원리 중 소극적 예의 전략은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관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의 표현으로 유감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화할 때 자신의 의견을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④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리는 것을 동의의 격률이라고 하며, 이는 대화의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02 세연은 본인의 나이를 묻는 할머니의 질문에 언니, 동생의 나이까지 말하며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지영은 방과 후의 계획을 묻는 윤호의 물음에 급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대화의 맥락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다.

03 형준은 친구에게 짐을 들어 달라고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관해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예의를 갖추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한 것에 관해 유감을 표현해야 한다는 체면 유지의 원리 중 소극적 예의 전략을 활용한 것이다.

04 〈보기〉의 주원과 은서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주원이 상대인 은서와의 의견에서 다른 점을 최소화하며 대화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은서는 ⓐ에서 서로 공손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대화해야 한다는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며 주원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② 주원은 이번 춤의 안무가 어렵다는 은서의 의견에 ⓑ와 같이 말하며 동의하고 있다. 이는 상대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리는 동의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③ 주원은 은서에게 ⓒ와 같이 말하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다. 이는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리는 찬동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④ ⓓ에서 은서는 자신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겸양의 격률을 지킨 것이다.

05 (나)에서 현명은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 지유의 제안에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모호하고 애매하게 대답하고 있다. 이는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협력의 원리 중,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태도의 격률에 어긋난 대답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고 명료하게 내용을 정리하여 〈보기〉와 같이 수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6 〈보기〉의 김 선생은 손님 대접에 인색한 주인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은 주인의 닭을 빌려 타고 갈 테니 자신의 말을 잡아 안주를 마련하라면서 재치 있는 우회적 표현으로 주인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있다. 이는 (가)에 제시된 돌려 말하는 관습이 드러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주인이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는 뜻으로 말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한 후에 해야 함을 이르는 말'인 '삼사일언'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② 〈보기〉의 주인은 자신이 내온 음식이 부끄럽다면서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이는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이 드러난 예이다.

③, ④ 김 선생이 자신 스스로를 높여서 표현하거나 과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07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가루는 체에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길어질수록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마침내는 말다툼까지 가게 되니 말을 삼가라는 의미로, ㉠ '삼사일언'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① '말은 청산유수다'는 말을 그칠 줄 모르고 잘한다는 뜻이다.

②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뜻이다.

③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라'는 고기의 참맛을 알려면 겉만 핥을 것이 아니라 자꾸 씹어야 하듯이,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은 시원히 다 해 버려야 좋다는 뜻이다.

④ '말이 앞서지 일이 앞서는 사람 본 일 없다'는 말없이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뜻으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것을 강조한 것일 뿐,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는 관련이 없다.

08 (가)에서 설명하는 돌려 말하는 관습은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내용을 완곡하게 돌려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는 친구의 음식 권유를 완곡하게 거절하는 말이며, ⓓ는 문을 닫고 들어오라는 뜻을 완곡하게 돌려 하는 말이다. (나)에서 설명하는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은 자신에 대한 칭찬을 줄이고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는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차린 것이 없다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며, ⓔ는 자신의 노력으로 상을 받는 상황에서 친구들 덕분이라면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다)에서 설명하는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과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 ⓒ에서 인용한 '말이 많으면 실언이 많다'는 속담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 그만큼 쓸 말은 적어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09 우리말 연구가의 말에 따르면 우리 조상의 지혜와 전통이 녹아 있는 옛말에는 차별적 인식을 담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옛말이라고 해서 비판적인 인식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10 ㉠ '꿀 먹은 벙어리'는 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은 일부분을 알면서도 전체를 아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 '여자 셋이 모이면 새 접시를 뒤집어 놓는다'는 여자가 많이 모이면 말이 많고 떠들썩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과 ㉡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담은 표현으로, ㉠, ㉡, ㉢ 모두 개선해 나가야 할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

11 고정된 공간과 일정 수준의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인을 의미하는 ⓐ '잡상인'은 비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잡-'이라는 접두사를 사용하여 직업 및 사회적 지위를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 ⓒ '청소부'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하의 의미를 담아 부르기 시작한 이후, 당사자들이 해당 표현을 꺼리게 되었다. 이렇듯 특정 직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비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 '잡상인'과 ⓒ '청소부'는 각각 '상인'과 '환경 관리원'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오답 풀이

ⓑ '여의사'는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여성임을 드러내고 있는 성차별적 표현이기 때문에 '의사'로 바뀌었다.

ⓓ '미숙아'는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들을 모자라다고 여기는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른둥이'로 바뀌었다.

ⓔ '혼혈아'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적 개체로 바라보지 않고 타 인종 간에 이루어진 결합의 부산물로만 여기는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로 바뀌었다.

12 예전에는 학교 방문과 같은 바깥일은 아버지나 형이 챙겼기 때문에 학생의 보호자를 이를 때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의 '학부형'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시대가 변하여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학부형'이라는 남녀 차별적 표현을 이제는 '학부모'라는 말로 고쳐 사용한다.

13 이 글에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전개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개성 있게 쓴 수필이다.

② 한국어 강의를 듣는 외국인 학생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③ '그 까닭은 무엇일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 높임 표현을 이해할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와 같이 스스로 묻고 답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글의 뒷부분에서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소통하려고 다가올 때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고 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다른 언어 공동체와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14 진정한 소통을 위해 상대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지 못하더라도 나와 다른 상대의 모습을 편견 없이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

15 언어 공동체란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사회 집단을 가리키며, 지역, 세대, 성(性), 문화 등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언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 ㉠ '한국 가요나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 '한국인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사는 결혼 이민자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담화의 내용과 방식이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한국어 표현도 다르다.

오답 풀이

① 주로 한국인으로 구성된 친족들과의 언어 공동체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아니라 ㉡이다.

②, ③ 한국의 10대, 20대와 대화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니라 ㉠이다.

⑤ 이 글을 통해 ㉡이 ㉠보다 한국어에 대해 더 빨리 배우고 싶어 하는지는 알 수 없다.

16 〈보기〉에서 같은 언어 공동체 안에서 언어 실천 양상이 변화한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④ 〈보기〉에서 정훈은 '혼공(혼자 공부)'과 '느좋(느낌이 좋다)'과 같은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줄임말을 사용하는 동시에 '아입니더'와 같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다. 이처럼 한 개인은 하나 이상의 언어 공동체에 속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언어 공동체가 존재한다.

② 정훈과 아버지는 같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⑤ 언어 공동체가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맥락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이나 표현, 담화 관습 등이 다를 수 있다.

17 ○○○ 씨는 존중의 의미로 가장 나중에 뜬 따뜻한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 곳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 문화를 적용하여 손님에게 가장 나중에 뜬 밥을 주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손님은 ○○○ 씨가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여 언짢음을 느꼈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는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가)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이다. '일없다'는 북한말로는 '별일 없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이지만 남한에서는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이 표현을 남한 사람에게 사용했을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학부형', '벙어리', '외국인치고' 등의 표현은 차별적 인식을 담고 있다.

③ '생선'은 생일 선물의 줄임말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다른 세대의 사람인 할아버지에게 이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19 (나)의 할머니는 대화할 때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에 관한 칭찬을 줄이고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는 겸손하게 말하기 관습을 반영하여 한껏 음식을 차렸지만 차린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20 (가)는 문화의 차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예이고, (나)는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이 드러난 예이다. 상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문화나 관습 등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3 올바른 언어생활

01 음운의 변동

내용 확인하기 106~109쪽

1④ 2③ 3⑤ 4③ 5② 6③ 7② 8③ 9⑤ 10⑤

1 음운 변동과 발음, 표기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려면 음운 변동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음운 변동은 표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물약'을 발음할 때는 먼저 'ㄴ'이 첨가되어 [물냑]이 되고, 첨가된 'ㄴ'이 앞말의 끝소리인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물략]으로 발음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유음화라 한다.

3 한자어에 '란, 량, 력, 론, 료, 례, 령' 등이 접사처럼 붙은 말은 'ㄴ+ㄹ'을 [ㄴㄴ]으로 발음한다. '생산량'도 이 조건에 해당하여 [생산냥]으로 발음한다. 'ㄴ'이 유음인 'ㄹ'로 바뀌어 소리 나지 않으므로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단어이다.

오답 풀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앞에 오는 'ㄴ'이 'ㄹ'로 바뀌어 소리나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 ① 신라[실라], ② 원리[월리], ③ 논리[놀리], ④ 선릉[설릉]으로 발음된다.

4 '박물관'은 [방물관]으로, '관람'은 [괄람]으로 소리 나므로 각각 비음화, 유음화의 사례가 맞다.

오답 풀이
① 권력[궐력] - 유음화, 설날[설:랄] - 유음화
② 난로[날:로] - 유음화, 실내[실래] - 유음화
④ 밥물[밤물] - 비음화, 백마강[뱅마강] - 비음화
⑤ 광안리[광알리] - 유음화, 광한루[광:할루] - 유음화

5 구개음화 현상은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ㅖ'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일어난다. '같은'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가튼]으로 발음한다.

6 '감고'는 어간 '감-'에 첫소리가 'ㄱ'인 어미 '-고'가 결합하면서 [감:꼬]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④ 학교[학꾜], 밥상[밥쌍]은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뒤에 온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소리 나는 현상이다.
② 볼 거야[볼꺼야]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다.
⑤ 실수(失手)[실쑤]는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오는 'ㄷ, ㅅ, ㅈ'이 된소리로 소리 나는 현상이다.

7 두음 법칙은 한자어의 첫머리에서 'ㄴ, ㄹ'이 발음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보기〉의 단어들은 고유어나 외래어로,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8 ③의 '서'는 '서다'의 어간 '서-'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서'가 된 것이므로 'ㅓ'가 탈락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담그-+-아 → 담가: 'ㅡ' 탈락
② 배고프-+-아 → 배고파: 'ㅡ' 탈락
④ 슬프-+-어서 → 슬퍼서: 'ㅡ' 탈락
⑤ 아프-+-아 → 아파: 'ㅡ' 탈락

9 '돋치다'는 어근 '돋-'에 접미사 '-치-'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돋친'은 두 음운이 하나로 줄어들어 소리 나는 거센소리되기의 예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맞히다[마치다], ② 국화[구콰], ③ 낳고[나코], ④ 좁히게[조피게]로 발음된다.

10 '잠갔다'는 '잠그- + -았- + -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어간 '잠그-'에 어미 '-았-'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음 'ㅡ'가 탈락하였다. '맏형'은 [마텽]으로 발음되며, 예사소리 'ㄷ'이 'ㅎ'과 합쳐져 [ㅌ]으로 소리 난다. 즉, '잠갔다'는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었고, '맏형'은 반영되지 않았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110~111쪽

01③ 02② 03④ 04⑤

01 국물[궁물], 받는다[반는다], 법무관[범무관]은 모두 뒤에 오는 'ㄴ, ㅁ'이 앞의 'ㄱ, ㄷ, ㅂ'에 영향을 주어 'ㅇ, ㄴ, ㅁ'으로 바뀌어 소리 나므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예이다.

오답 풀이
① 두음 법칙에 관한 설명이다.
② 유음화에 관한 설명이다.

④ 거센소리되기에 관한 설명이다.
⑤ 구개음화에 관한 설명이다.

02 '같은'은 [가튼]으로 연음하여 발음한다. 이때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닫히지[다치지], ③가을걷이[가을거지], ④붙이기가[부치기가], ⑤ 해돋이[해도지]로 발음된다.

03 발전(發展)은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오는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예이다.

오답 풀이
① 학교[학꾜], ② 감고[감:꼬], ③ 보낼 수[보낼쑤], ⑤ 가질 수[가질쑤]로 발음된다.

04 〈보기〉는 모음 탈락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논의(論議)'에서 '논'은 두음 법칙이 적용된 예이다.

오답 풀이
① 끄- + -어라→꺼라: 'ㅡ' 탈락
② 쓰- + -어서→써서: 'ㅡ' 탈락
③ 건너- + -어서→건너서: 'ㅓ' 탈락
④ 바쁘- + -아→바빠: 'ㅡ' 탈락

소단원 평가 112~115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③ 06 ③ 07 ① 08 ② 09 ② 10 ⑤ 11 ③ 12 ① 13 ② 14 [심:꼬], [옫꺼리] 15 ③ 16 ③ 17 ② 18 ① 19 ①

01 ㉢ '막론'은 'ㄱ' 뒤의 'ㄹ'이 'ㄴ'으로 변화한 후, 이것이 'ㄱ'에 영향을 주어 'ㄱ'이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과정을 거친다. 즉 [막논]→[망논]으로 발음된다.

02 구개음화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보기>의 밑줄 친 단어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6학년[유캉년]의 '학년'에서 'ㄴ'이 '학'의 'ㄱ'에 영향을 주어 'ㄱ'이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② 관람[괄람]에서 'ㄴ'이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④ '학생[학쌩]'에서 'ㄱ' 뒤에 오는 'ㅅ'이 된소리로 소리 나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⑤ 법학[버팍]은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6학년[유캉년]은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03 '연필심'은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올바른 발음은 [연필심]이다.

오답 풀이
①, ④ 비음화가 일어난다.
② 유음화가 일어난다.
③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04 ㉤ '국수'의 예사소리 'ㅅ'이 'ㄱ'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인 'ㅆ'으로 바뀌어 [국쑤]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 '신고'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신:꼬]로 발음된다.
② ㉡ '실내화'는 유음화가 일어나 [실래화]로 발음된다.
③ ㉢ '결정'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결쩡]으로 발음된다.
④ ㉣ '먹는'은 비음화가 일어나 [멍는]으로 발음된다.

05 〈보기 1〉의 ㉢ '갈 데가'는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갈떼가]로 발음되므로 〈보기 2〉의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 감고 → [감:꼬]: ⓐ에 해당한다.
② ㉡ 실수 → [실쑤]: ⓑ에 해당한다.
④ ㉣ 만날 친구 → [만날친구]: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 발달 → [발딸]: ⓑ에 해당한다.

06 〈보기〉에서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백분률'은 '백분율'로 적어야 한다.

07 '덮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덥개]로 변한 다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덥깨]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② '닦는'은 [닥는](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변한 다음 [당는](비음화)으로 변하는 과정을 거친다.
③ '꽃말'은 [꼳말](음절의 끝소리 규칙)로 변한 다음 [꼰말](비음화)로 변하는 과정을 거친다.
④ '깨끗한'은 [깨끋한](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변한 다음 [깨끄탄](거센소리되기)로 변하는 과정을 거친다.
⑤ '읊는다'는 [읍는다](음절의 끝소리 규칙)로 변한 다음 [음는다](비음화)로 변하는 과정을 거친다.

08 '그렸다'는 '그리- + -었- + -다'가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으로, '그리-'의 단모음 'ㅣ'와 '-었-'의 단모음 'ㅕ'가 만나 '그렸-'의 이중 모음 'ㅕ'가 되었으므로 모음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타-+-아서 → 타서: 'ㅓ' 탈락
③ 서-+-어 → 서: 'ㅓ' 탈락
④ 담그-+-았-+-다 → 담갔다: 'ㅡ' 탈락
⑤ 쓰-+-어서 → 써서: 'ㅡ' 탈락

09 '집안일'은 [지반닐]로,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 ㅑ, ㅕ, ㅛ, ㅠ'로 시작할 때 'ㄴ'이 덧붙어 소리 나는 ㄴ 첨가 현상이 나타난 예이다. '주말에는 말린 집안일을 처리한다.'라는 문장에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없다.

오답 풀이
① 붙인[부친], ③ 같이[가치], ④ 가을걷이[가을거지], ⑤ 햇볕이[해뼈치]로 발음된다.

10 '높낮이'는 [놉나지](음절의 끝소리 규칙)가 되었다가 [놈나지](비음화)로 발음되는데 이때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하얗게[하:야케], ② 연중행사[연중행사], ③ 식물[싱물], ④ 반려[발:려]로 발음된다.

11 '니글거린다'는 'ㄹ'에서 'ㄴ'으로의 교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ㄴ'으로 시작하는 고유어이다. 두음 법칙은 한자어에 적용된다.

12 '세계'의 올바른 발음은 [세계]이다. '세계'를 [쎄계]로 발음하는 것은 된소리 발음의 남용에 해당한다.

13 '행복하게'는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어 [행보카게]로 소리 난다. '축하'도 마찬가지로 거센소리되기가 적용되어 [추카]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꽃잎'은 [꼳입](음절의 끝소리 규칙)→[꼳닙](ㄴ 첨가)→[꼰닙](비음화)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③ '손가락'은 [손까락]으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④ '홑이불'은 [혼니불]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난다.
⑤ '만리포'는 [말리포]로 유음화가 일어난다.

14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는 ⓑ '심고'와 ⓓ '옷걸이'이다. 이 단어들은 각각 [심:꼬]와 [옫꺼리]로 발음된다.

15 〈보기〉는 유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속리산'은 비음화가 일어나 [송니산]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선릉[설릉], ② 대관령[대:괄령], ④ 광한루[광:할루], ⑤ 한라산[할:라산]은 모두 유음화가 일어난다.

16 '불고기'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글자 그대로 [불고기]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노랗다[노:라타]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② 꽃다발[꼳따발]은 받침 'ㅊ'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ㄷ'이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④ 쇠붙이[쇠부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막국수[막꾹쑤]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17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 된소리인 'ㄲ, ㄸ, ㅃ, ㅆ, ㅉ'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한다. ㉠~㉤은 모두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이때 눈길[눈낄]은 '눈'과 '길'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에서 설명하는 어간 받침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의 예가 아니다.

18 '잠갔다'는 '잠그- + -았- + -다'에서 어간의 'ㅡ'가 탈락한 사례이다. '치러' 또한 '치르- + -어'에서 어간의 'ㅡ'가 탈락하므로, 두 단어 모두 모음 'ㅡ'가 탈락한 사례라는 공통점이 있다.

19 어떻게[어떠케]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잡히다[자피다]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파랗다[파:라타]는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② 잎새[입쌔]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ㄱ, ㄷ, ㅂ' 뒤에 오는 자음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굳세다[굳쎄다]는 'ㄱ, ㄷ, ㅂ' 뒤에 오는 자음인 'ㅅ'이 'ㅆ'으로 바뀌어 소리 나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등산로[등산노]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③ 발전[발쩐]은 한자어에서 'ㄹ' 뒤의 'ㄷ, ㅅ, ㅈ'이 된소리로 소리 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월세[월쎄]는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나, 급행열차[그팽녈차]는 거센소리되기와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④ 돋네[돈네]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실내[실래]는 유음화가, 국화[구콰]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칼날[칼랄]은 유음화가 일어난다. 설날[설:랄]은 유음화가 일어나지만, 법학[버팍]은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1등급 평가 116~117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④ 05 ② 06 비음화, 된소리되기, 유음화 07 ④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8 [1단계] 형식

[2단계] 형태소

[3단계] '견디다'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로, '디'의 모음 'ㅣ'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다. 구개음화는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일어나므로 '견디다'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01 ㉠은 비음화를 설명한 것으로, 비음화가 일어나면 조음 위치는 동일하지만 조음 방법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변한다. ㉡은 유음화를 설명한 것으로, 유음화가 일어나면 조음 위치는 동일하지만 조음 방법만 비음에서 유음으로 변한다.

오답 풀이

① 비음화와 유음화 모두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② 유음화가 일어날 때 신라[실라]와 같이 앞말의 음운이 바뀌기도 하고, 설날[설:랄]과 같이 뒷말의 음운이 바뀌기도 한다.
③ 식민지[싱민지]는 비음화, 권력[궐력], 전락[절:락]은 유음화가 일어난다.
④ 음운의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일어난다.

02 두음 법칙은 자음의 종류가 아니라 첫머리의 음절 구성 유형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

03 굳는[군는]은 비음화가 적용된 예로 'ㄴ'이 앞말의 받침 'ㄷ'에 영향을 주어 'ㄷ'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오답 풀이

① '맑은[말근]'은 겹받침의 뒷자음이 뒷말의 첫소리로 옮겨 가 발음된 것이다.
② '첨벙거렸다[첨벙거렫따]'는 'ㅆ'이 'ㄷ'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이것에 영향을 받은 'ㄷ'이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었다.
④ '아팠다가[아팓따가]'는 '아프-+-았-+-다가'로, 'ㅡ' 탈락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ㅡ'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었으나, 된소리되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⑤ '듯하다[드타다]'는 끝소리 'ㅅ'이 'ㄷ'으로 바뀌고, 이것이 'ㅎ'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04 '꽃물'은 받침 'ㅊ'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꼳물]이 되고 'ㅁ'이 'ㄷ'에 영향을 주어 'ㄷ'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를 거쳐 [꼰물]로 소리 난다.

오답 풀이

① '먹는[멍는]'은 비음화가 일어난다.
② '맏형[마텽]'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③ '낮잠[낟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줄넘기[줄럼끼]'는 유음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05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인접한 음운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받침소리로는 일곱 개의 자음만 발음할 수 있다는 우리말의 특성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므로 이것이 일어나는 잎[입], 부엌[부억]이 ⓐ에 해당한다. 자음의 영향을 받아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된소리되기 등이 ⓑ에 해당한다. 국문학[궁문학], 듣는다[듣는다]는 비음화가 적용되었다. '해돋이'[해도지]는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된 것으로, 모음의 영향과 관련 있다.

06 박물관[방물관]은 비음화, 폭발[폭빨]은 된소리되기, 한라산[할:라산]은 유음화가 일어난다.

07 ㉣의 갈등[갈뜽]은 한자어에서 'ㄹ' 뒤에 오는 'ㄷ, ㅅ, ㅈ'이, 할 사람[할싸람]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ㄱ, ㄷ, ㅂ'이 된소리로 발음된 예이다.

08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확인

구개음화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 2단계: 사례 적용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견디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견디다'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견디다'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3
'견디다'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일부 틀리게 서술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구개음화의 개념을 포함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 형태소'와 같은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감점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02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내용 확인하기 120~123쪽

1 ② 2 ① 3 ② 4 ④ 5 ① 6 ⑤ 7 시원한 바다가 나에게 보였다. 8 (1) 직접 (2) 직접 (3) 간접 9 ⑤ 10 ④

1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것으로 주격 조사나 선어말 어미,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실현한다.
③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것으로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실현한다.
④ 학급 회의와 같은 상황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⑤ 높임 표현은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청자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2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것이고 객체 높임은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어머니께 네가 가 보렴.'에서 문장의 주체는 '어머니'가 아니라 '너'이며, '어머니'는 객체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체 높임이 아니라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3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것으로, 부사격 조사 '께'나 특수 어휘 '모시다', '드리다', '여쭈어보다' 등으로 실현된다. 선어말 어미 '-시-'는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문법 요소이다.

4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이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5 〈보기〉의 문장은 현재 시제이고, ①도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미래 시제, ③ 과거 시제, ④ 과거 시제, ⑤ 미래 시제의 문장이다.

6 ⑤는 '아이'가 제힘으로 양말을 신는 상황을 나타내는 능동문이다.

7 '나는 시원한 바다를 보았다.'라는 능동 표현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주어를 부사어로 바꾸고, 능동을 나타내는 '보았다'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이면 '시원한 바다가 나에게 보였다.'라는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8 (1)과 (2)는 직접 인용으로 '라고'에 의해, (3)은 간접 인용으로 '고'에 의해 인용을 드러내고 있다.

9 ⑤에서는 격식체 중 가장 높은 격식을 나타내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중을 격식을 갖추어 부르는 표현으로 한자어인 '내빈 여러분'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였다.
② 격식체와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③ '하십시오체'를 사용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청중을 아버지, 어머니와 벗이 되는 어른이나 그 이상 되는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인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였다.

10 한자어는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아서 고유어에 비해 좀 더 전문화되고 분화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124~125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②

01 ⑤에서는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② '해요체'를 사용하여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③ '께'와 '드렸다'를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④ '께서'와 '오셨다'를 통해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02 ㉢의 '-겠-'은 '내일 택배가 도착한다'는 것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화자의 능력과는 관련이 없다.

03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려면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③의 '영희가 자장면을 먹였다.'는 목적어인 '자장면을'이 그대로 유지된 문장이므로 피동문이 아니다. 또 '먹었다'의 피동사는 '먹혔다'이다.

04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인용 부호인 마침표가 사라지고, 조사가 '라고' 등에서 '고'로 바뀐다. 또 인칭 대명사, 지시 표현,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 〈보기〉는 직접 인용 표현으로, 이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어제 선생님께서 나에게 오늘 교무실로 오라고 말씀하셨다.'가 된다. 〈보기〉와 바꾼 문장의 주어는 모두 '선생님'으로, 변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선생님이 말을 한 시점은 어제이다. 직접 인용 표현에서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뀐다고 해서 말을 한 시점이 바뀌지는 않으므로, 지우면 안 된다.
③ 전체 문장의 '나'와 인용 문장에서의 '서준'은 동일 인물이다. 따라서 직접 인용 표현에서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나'를 부르는 말인 '서준아'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선생님이 '나'에게 교무실로 오라고 한 날은 어제를 기준으로 내일이므로, '내일'은 '모레'가 아니라 '오늘'로 바꿔야 한다.
⑤ 선생님에게 '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와'는 '오라고'로 바꿔야 한다.

소단원 평가 126~129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⑤ **05** ②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에서는 '해체'를, ㉡에서는 '해요'체를 사용하여 상대 높임을 실현하였다. **06** ③ **07** ① **08** ② **09** 과거 시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이 쓰였기 때문이다. **10** ⑤ **11** ④ **12** ④ **13** ⑤ **14** 서원이는 나에게 우리는 언제 집에 가냐고 물었다. **15** ④ **16** ⑤ **17** ④ **18** ⑤ **19** 일반 소비자에게 친숙한 '달콤', '새콤'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과일의 맛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01 ㉢은 특수 어휘 '모시고'를 통해 객체인 '할아버지'를 를 높이고 있을 뿐, 조사를 사용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은 종결 표현 '-습니다'로 청자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②, ③ ㉡은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④ ㉢은 '모시고'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02 교무실로 가는 이는 '성호'이고, 교무실로 오라고 말하는 이는 '선생님'이다. 따라서 '오시래'를 '오라고 하셔'와 같이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03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것이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④에서는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쭈다'를 활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하여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③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진지', '잡수다'를 활용하여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04 ㉤에서 '모시고'는 주어인 '동생'이 아니라 문장의 목적어인 '이모'를 높이는 표현이므로 '데리고'로 고치면 안 된다. 주어를 고려해 '가셨다'를 '갔다'로 고쳐야 한다.

05 ㉡에서는 대화 상대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 '해요체'의 종결 표현을 사용하였다. '저', '제가'와 같이 상대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말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의 대화 상대인 미주는 화자보다 어리거나 비슷한 나이의 인물이므로 '해체'를 사용하였다.
③ ㉠과 ㉡ 모두 화자나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을 실현한 문장이다.
④ ㉠과 ㉡ 모두 종결 표현을 통해 대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고 있다.
⑤ ㉠에 사용된 '해체'와 ㉡에 사용된 '해요체'는 모두 격식을 덜 차려도 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비격식체이다.

06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다. ㉡은 '내린다'에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을 사용하였으며,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다.

07 ⓐ의 '-아 있-'은 완료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준우가 의자에 앉는 동작이 완결되었음을 나타낸다. 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발화 시점에서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드러내고 있다.

08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데, 이때 과거의 일이 발화 시점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뜻하기도 한다. 앞말 '여전히'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야 하므로 ㉡은 '귀여운'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09 〈보기〉에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10 ㉠을 ㉡으로 바꿀 때 ㉠의 주어 '벌이'는 ㉡의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인 '벌에게'가 되었다.

오답 풀이
① ㉠은 능동 표현으로 주어가 자기 의지대로 어떤 행위를 하였음을 나타낸다.
② ㉡은 피동 표현으로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어떤 행위를 당했음을 나타낸다.

③ '쏘였다'는 '쏘-+-이-+-었-+-다'로,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표현이다.
④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능동 표현의 목적어가 피동 표현의 주어가 된다.

11 ④의 '읽혀졌다'는 '읽다'의 피동사 '읽히다'에 피동을 만드는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읽혀졌다'는 '읽혔다' 정도로 수정해야 올바른 피동 표현이 된다.

오답 풀이
① 접미사 '-이-'에 의해 피동이 실현되었다.
② 접미사 '-기-'에 의해 피동이 실현되었다.
③ 접미사 '-리-'에 의해 피동이 실현되었다.
⑤ '-어지다'에 의해 피동이 실현되었다.

12 ④의 '보여집니다'는 피동 접미사 '-이-'와 피동을 만드는 '-어지다'가 중복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보입니다'로 고쳐야 한다.

13 ⓐ는 능동 표현, ⓑ는 피동 표현이다. 능동문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만 피동문을 사용하면 대상의 상태만 드러난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의미상 행위의 주체는 '나(저)'로 드러나 있다.
②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가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은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③ 피동 표현을 통해서는 주체의 의지를 드러내기 어렵다.
④ 〈보기 1〉에서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14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큰따옴표로 묶인 표현을 풀고, 조사 '라고'를 '고'로 교체한 뒤, 다른 조사나 지시 표현 등도 상황에 맞게 고쳐야 한다.

15 ④에서는 직접 인용에 사용하는 문장 부호인 따옴표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라고'가 아니라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를 사용하여 '된다라고'를 '된다고'로 바꾸어야 한다.

16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때는 부사격 조사가 '라고'에서 '고'로 달라진다. 또 인칭 대명사, 지시 표현,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17 ㉣은 부사격 조사 '고'를 사용한 간접 인용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③ 기자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최대한 신뢰성을 더하고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자신을 숨기면서 ㉡의 '보입니다', ㉢의 '우려되고 있습니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호우 경보 발령의 주체인 기상청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당부의 말은 기자가 아닌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한 것이다. 이를 전달할 때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중 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에 객관성을 더한다고 볼 수 있다.

18 ㉠ '분류한다'는 '종류에 따라서 가르다.'라는 뜻이다.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다.'라는 뜻의 단어는 '분석하다'이다.

19 '브릭스(Brix)'나 '퍼센트(%)'는 감귤의 당도와 산도에 관한 전문 용어로 해당 학문 분야에서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감귤이 얼마나 달고 신지를 이 용어만으로 바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새 표시 방안을 제시한 까닭은 일반 소비자에게 친숙한 단어를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들도 감귤의 당산비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1등급 평가 130~131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⑤ 05 ① 06 ⑤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7 [1단계] 전망되고
[2단계] 피동
[3단계] '기상청에서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행위의 주체를 밝혀 '기상청에서는'을 주어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동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01 ㉤에서 문장의 주체는 '저(학생)'이다. 선생님은 주체가 아니라 대화 상대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② ㉡은 부사격 조사 '께'와 '드리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은 주격 조사 '께서'와 '계시다'라는 어휘를 통해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④ ㉣의 종결 표현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청자인 손님을 높이고 있다.

02 '드리다'는 문장 내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을 실현할 때 사용한다.

03 ⓓ에서 '끝났다'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화자가 확신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했으니'는 과거에 숙제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것이다.

04 '물리게 되었다'는 '물다'의 피동사 '물리다'에 '-게 되다'를 사용하여 이중 피동이 된 것으로 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05 ㉠에는 주체를 낮출 필요가 없으므로 '내'가 들어가며, ㉡에는 조사 '고'를 사용한 '정리하겠다고'가 들어간다. ㉢에는 발화시를 고려하여 시간 부사 '오늘'이, ㉣에는 조사 '고'를 사용한 '좋겠느냐고'가 들어간다.

06 ⓓ에서 '멋진 작품'을 만든 주체는 '조각가(의 손)'로, 겉으로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는 '우산이 바람에 날아간다.'라는 문장에 피동 접미사 '-리-'를 사용하여 만든 피동문이다.
② ⓑ는 '은서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문장을 피동문으로 바꾼 것이다. 이 피동문에서는 잡힌 대상인 '물고기'를 주어로 하여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③ 피동문은 행위의 주체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④ ⓓ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만들다'에 '-어지다'를 사용하여 피동문으로 만들었다.

07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문장에서 문법 요소를 잘못 사용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도 함께 살펴야 한다. 〈보기〉의 문장은 행위의 주체로서 '기상청에서는'을 주어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동 표현이 사용된 '전망되고 있습니다.'가 호응하는 것은 어색하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전망되다'는 '전망'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붙은 표현으로, 피동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문장에 피동 접미사가 잘못 사용된 사례이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치고, 잘못 사용된 문법 요소의 종류도 알맞게 파악한 경우	5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쳤으나, 잘못 사용된 문법 요소의 종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3
어색한 부분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으나 바르게 고치지 못하고, 잘못 사용된 문법 요소의 종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이 문제는 문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상 호응까지 살펴 잘못된 문법 요소를 고치는 과정을 거쳐야 해결할 수 있다. 평소에도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상 호응 관계를 살피고 잘못된 표현을 찾아 고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대단원 평가 132~137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⑤ 05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마디'는 그 자체로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06 ③ 07 [시자캅니다], 예사소리 'ㄱ'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바뀌었기 때문다. 08 ④ 09 ② 10 ③ 11 ② 12 ③ 13 ④ 14 ④ 15 〈보기〉의 문장은 '제출하시래'에서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하여 어색하다. '제출하시래'라고 할 경우 선생님이 아니라 수행 평가지를 제출하는 사람인 민하를 높이게 되기 때문이다. 16 ④ 17 ① 18 ④ 19 ⑤ 20 ⑤ 21 ④ 22 ③ 23 ② 24 ⑤ 25 ④ 26 ④ 27 ③

01 '앉아'는 겹받침 중 하나가 뒷말의 첫소리로 옮겨 가 소리 나는 연음 현상이 일어나 [안자]로 발음된다. 연음은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맏이[마지]'는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② '식물[싱물]'은 'ㄱ'이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④ '석면[성면]'은 'ㄱ'이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⑤ '하얗게[하:야케]'는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줄어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

02 유음화는 음운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ㄴ'이 'ㄹ'로 바뀌는 것이므로 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03 '좋다[조타]'는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ㅋ, ㅌ, ㅍ, ㅊ'으로 소리 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예이다. 거센소리되기는 두 개의 자음이 합쳐져 하나의 자음으로 소리 나는 과정에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음운 축약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논리[놀리]'는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인 'ㄹ'로 바뀌었으므로(유음화),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② '밥물[밤물]'은 'ㅂ'이 뒤에 오는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ㅁ'로 바뀌었으므로(비음화),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③ '발전[발쩐]'은 한자어 받침 'ㄹ' 뒤에 오는 'ㅈ'이 'ㅉ'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이는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⑤ '꽃다발[꼳따발]'은 받침 'ㄷ'이 뒷말의 첫소리에 영향을 주어 'ㄷ'이 'ㄸ'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이는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04 '등산로'는 제20항 중 '다만'에 해당하는 사례로, [등산노]로 발음해야 한다.

05 〈보기〉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구개음화는 '해돋이[해도지]'처럼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마디'는 그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06 ㉣ '복도[복또]'는 앞말의 받침 'ㄱ'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로 소리 나는 된소리되기의 사례이다.

오답 풀이
① ㉠ '겉에'는 [거테]로 발음해야 한다.
② ㉡ '글자'는 [글짜]로 발음해야 한다.
④ ㉤ '끝으로'는 [끄트로]로 발음해야 한다.
⑤ ㉥ '닫힌'은 [다친]으로 발음해야 한다.

07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면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므로 ㉠ '시작합니다'는 [시자캄니다]로 발음된다.

08 '감기다'는 '감다'의 피동사이다. 어간 '감-'이 'ㅁ'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기-'는 어미가 아니라 피동 접미사이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고 [감기다]로 소리 난다.

09 ㉡ '따뜻하게'는 [따뜨타게]로 소리 난다. 이는, 'ㅅ'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따뜯하게]가 된 후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줄어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결과이다.

오답 풀이
① ㉠ '볕이'는 'ㅕ'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벼치]로 발음된다(구개음화).
③ ㉢ '바빴던'은 용언의 어간 '바쁘-'에 어미 '-았-'과 '-던'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하여 '바빴던'이 된 것이다.
④ ㉤ '일상(日常)'은 한자어 받침 'ㄹ' 뒤에 오는 예사소리 'ㅅ'을 된소리로 발음하여 [일쌍]으로 발음된다(된소리되기).
⑤ ㉥ '같이'는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ㅊ'으로 바뀌어 [가치]로 발음된다(구개음화).

10 ㉢의 '설날'은 'ㄴ'이 'ㄹ' 뒤에 올 때 'ㄹ'로 바뀌는 경우이고(순행적 유음화), '신라'는 'ㄴ'이 'ㄹ' 앞에 올 때 'ㄹ'로 바뀌는 경우이다(역행적 유음화). 이처럼 ㉢의 두 단어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

11 ㉡ '훈련[훌:련]'은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므로 유음화에 해당한다. '선릉[설릉]' 역시 유음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 '막는다[망는다]'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실내'[실래]에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③ ㉢ '급류[금뉴]'와 '백로'[뱅노]에는 모두 비음화가 일어난다.
④ ㉤ '물받이[물바지]'와 '굳이[구지]'에는 모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 '잡힌다[자핀다]'에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그러나 '말살[말쌀]'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12 ⓒ의 '드렸다'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어휘이다.

오답 풀이
① ⓐ의 '-요'는 비격식체(해요체), ⓔ의 '-습니다'는 격식체(하십시오체)로 상대 높임의 종결 표현이다.
② ⓑ의 '뵈러'는 객체인 고모를, ⓔ의 '모시고'는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④ ⓓ의 '께서'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⑤ ⓔ의 '모시고'는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13 ④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높이고자 하므로, '계시겠습니다' 대신 '있으시겠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커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인 손님을 높인 것이다.
② 강아지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③ '있다'의 높임말은 '계시다'이므로 '읽고 있습니다'를 '읽고 계십니다'로 바꾸어 할아버지를 높인 것이다.

⑤ '모시러'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인 것이다.

14 '선생님'과 '될까요'에서 상대 높임 표현이, '부모님께'와 '드리면'에서 객체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15 '제출하시래'는 '제출하다'에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가 붙은 표현이다. 그런데 수행 평가지를 제출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아닌 민하이므로, '제출하시래'는 주체 높임이 잘못 사용된 어색한 표현이다.

16 ㉣ '하겠다며'에서 '-겠-'은 피아노 연습을 끝까지 하려는 동생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17 관형사형 어미 '-는'은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18 '-았-/-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지만 ④의 경우에는 미래에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④는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19 동사를 과거 시제로 나타내려면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나 '-던'을 사용한다. 따라서 ㉤에는 '일'이 아니라 '이었던'이 들어가야 한다.

20 ㉢은 접사가 아니라 '-아지다'를 통해 피동을 실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가 되므로, ㉠의 주어인 '도둑이'는 능동문에서 목적어가 된다.
② ㉡의 '파괴되어졌다'에서는 명사 '파괴'에 접미사 '-되다', '-어지다'를 둘 다 사용하여 이중 피동이 된 것이다.
③ ㉢만으로는 현수막을 건 주체를 확인할 수 없다.
④ 피동문의 주어는 행위를 당한 대상인 '과자'이므로, 이 대상이 좀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21 ⓒ에서 목적어인 '진실을'이 ⓓ에서는 주어인 '진실이'로 바뀌었다.

오답 풀이
① ⓐ는 능동문, ⓑ는 피동문으로, ⓑ에서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더 강조된다.
② ⓐ의 주어인 '누나가'가 ⓑ에서는 부사어 '누나에게'로 바뀌었다.
③ ⓑ의 '잡혔다'는 '잡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의 '밝혔다'는 '밝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⑤ ⓓ의 '밝혀졌다'는 사동사 '밝히다'에 피동을 만드는 '-어지다'가 결합한 것으로, 이중 피동이 아니다.

22 ③에서 집에 늦게 오는 주체는 '나'이므로 '오실 거라고'가 아닌 '올 거라고'로 고쳐야 한다.

23 간접 인용 표현보다 직접 인용 표현에서 현장감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24 능동문을 사용하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체'가 강조되고, 피동문을 사용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강조되어, 사회적 휴리스틱을 환경 정책에 도입하는 것의 필요성이 더 두드러진다. 따라서 ㉠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관적 생각을 완화하고 상황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판단된다'라는 서술어의 주체는 글쓴이다. 피동문으로 주체가 강조되지는 않는다.
③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독자가 받는 부담감과는 관계가 없다.
④ ㉠에 인용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25 '주장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우다.'이고, '강조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다.'이다. '주장하다'와 '강조하다'는 그 의미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에서 서술어를 '주장하였다'에서 '강조하였다'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독자의 신뢰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26 ㉡은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다. 학술 담화의 언어 주체는 자신의 생각이 주관적인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 주장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학술 담화에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글쓴이의 생각을 좀 더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7 만연체란 많은 어구를 이용하여 반복·부연·수식·설명함으로써 문장을 장황하게 표현하는 문체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문장의 긴밀성이 떨어진다는 흠이 있다. 따라서 학술적인 글을 쓸 때는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학술 담화에서 전문어가 영어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불필요하게 영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근거를 제시할 때 인용한 부분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 지시, 대용, 접속 등의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글을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
⑤ 논리성을 갖추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논리적인 문장이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민주 시민의 대화

01 논증 파악하며 읽기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장대익

내용 확인하기 142~144쪽

1 ④ 2 ③ 3 그렇다면 우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 4 ② 5 ④ 6 ① 7 ① 8 ④ 9 ④

1 (가)에서 무엇을 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면 내재 동기가 작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칭찬'은 외적 보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은 ㉠ '내재 동기'가 아니라 외재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2 ㉡ '실험'은 인간의 문제 해결에 미치는 동기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나)에 제시된 실험의 내용에 따르면 보상을 준다는 말이 없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게 했을 때, 문제 해결에 평균 15분이 걸렸다. 그러나 보상을 준다고 한 후 문제를 풀게 하자 원래 문제보다 쉽게 조정한 문제를 푸는 데에는 15분 이내가, 원래 문제를 푸는 데에는 18분이 걸렸다. 이 글에 따르면 이러한 실험 결과는 외적 보상이 쉬운 문제를 푸는 데에 한해서만 효과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오답 풀이
① ㉡ '실험'은 외적 보상은 쉬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외적 보상이 문제를 풀 때 긴장감을 조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② 이 실험에서는 외재 동기와 문제 풀이의 효율에 관해서만 언급하였을 뿐 내재 동기와 문제 풀이와의 관련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④ 이 실험에서는 모두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문제를 풀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에는 외적 보상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외적 보상이 없어야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⑤ 이 글에서 내재 동기와 외적 보상의 효과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3 이 글은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 중 무엇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독자에게 질문함으로써 독자가 이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4 (다)에서 허○○ 교수는 자신에게 수학 공부는 마라톤을 뛰려고 근력 운동을 즐기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는 더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 매일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허○○ 교수는 이러한 과정을 즐기는 것이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삶에서 수학 공부가 내재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외재 동기만을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은 경쟁, 비교 등의 문제가 많다고 했지만, 수익 창출이 어려운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③ 파인먼은 자신의 노벨상 수상을 의미 있게 여기지 않았으며, 그가 수상 이후 연구에 더 매진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임○○ 씨는 인터뷰에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한 후 마음이 심란해졌다고 하였을 뿐, 본인이 만족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이 글에서는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내재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며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뿐, 외적 보상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 ㉢은 외적 보상만을 좇을 때 일어나는 문제를 가리킨다. (나)에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외적 보상을 제공하는 상황, 즉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 하기 위해 부모가 보상을 이야기하는 상황과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려고 회사 대표가 연봉을 올려 주는 상황을 문제라고 지적하지는 않았다.

6 세 사람은 모두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답 풀이
② 허○○ 교수와 파인먼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임○○ 씨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파인먼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허○○ 교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7 ㉠은 수많은 찬사를 받으며 살아 왔고 외재 동기의 유혹도 많이 받았지만 내재 동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큰 상을 수상한 사람들이지만 외재 동기보다는 내재 동기에 따라 살기 때문에 상을 타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이다.

8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 '이들'과 ㉢ '고등학생들'은 모두 내재 동기 없이 주어진 것만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⑤ '이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9 (라)에서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춤을 추게 하려면 조련사의 칭찬이 아니라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는 비유를 통해 내재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으로, 사람들이 외재 동기와 같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조련사의 칭찬은 외부로부터 오는 외적 보상에 해당하므로 외재 동기를 일으키는 외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146쪽

01 ③

01 ㉠의 앞 문단에서 외적 보상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며 외적 보상 때문에 잘 돌아가는 조직은 쉬운 일만 하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의 뒷부분에서는 외적 보상만을 좇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외재 동기가 작용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예상 반론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147~151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⑤ **05** 객관적인 실험을 근거로 외적 보상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 줌으로써, 외적 보상을 따르는 삶에 문제가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06** ⑤ **07** ①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이 글에는 귀납 논증이 쓰였다. 허○○ 교수, 파인먼, 임○○ 씨의 사례에서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08** ㉠: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 ㉡: 평범한 사람들보다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은 내면(내재 동기)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했다. **09** ④ **10** ⑤ **11** ② **12** ④ **13** 문맥을 고려하면 마라톤은 수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근력 운동은 수학 연구를 하기 위해 기초를 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허○○ 교수에게 있어 수학 공부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 매일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14** ⑤

01 이 글은 논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논설문으로, 독자를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고문의 특성에 해당한다.
③ 건의문의 특성에 해당한다.
④ 설명문의 특성에 해당한다.
⑤ 수필의 특성에 해당한다.

02 2문단을 고려하면 무엇을 할 때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어 행동을 한다면 내재 동기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외재 동기를 작용시키는 것에는 칭찬과 같은 비물질적인 보상도 있다.
② 3문단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외적 보상과 관련한 실험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 글에 아이들이 내재 동기보다 외재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1문단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④ 이 글에서 일상적인 일이 외재 동기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3 3문단에서는 문제 해결에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논설문이지만, 기존의 주장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2문단에서 동기의 종류를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로 구분하였으나, 이 둘을 대비한 후 절충하여 결론을 도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이 글에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2문단에서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문제 상황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04 1, 2문단의 실험을 통해 외적 보상이 쉬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2문단에서 성과급, 즉 외재 동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회사는 쉬운 업무만 해결하려는 조직일 수 있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외재 동기만을 가진 직원이 많은 회사는 어려운 업무보다는 쉬운 업무를 해결하려는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의 외적 보상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실험 결과를 고려하면 외재 동기만을 좇으며 사는 삶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외적 보상만을 좇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술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외적 보상을 받는 사람은 남들과 끝없이 비교하여 마음이 황폐해진다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작은 장난감에서 시작한 외적 보상이 나중에는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외적 보상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다.

05 이 글에서는 실험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 중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외적 보상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을 보여 주면서 외재 동기가 늘 효과적인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서 결과만 좋으면 동기의 종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예상 반론에 대해 외적 보상만을 좇을 때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반박하고 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글쓴이는 외재 동기 혹은 외적 보상만을 좇을 때 우리 삶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6 3문단에서 글쓴이는 외적 보상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려는 부모와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려는 회사 대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외재 동기를 좇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독자와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독자들이 글의 내용을 가깝게 느끼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부분이다.

오답 풀이

① ㉠을 읽은 독자들이 외재 동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경험을 돌아볼 수도 있지만, 이를 글쓴이의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글의 글쓴이는 외재 동기를 좇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③ 3문단에서 외재 동기를 좇는 것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으나 ㉠에서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글 전체에서는 외재 동기만을 좇는 삶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고자 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07 이 글은 2문단에서 허○○ 교수, 3문단에서 파인먼, 4문단에서 임○○ 씨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내재 동기에 따라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보기〉를 고려하면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증에서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결론이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 내재 동기는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점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④ 연역 논증은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전제로 구체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이 글에 제시된 허○○ 교수나 파인먼, 임○○ 씨의 사례에 관한 내용은 결론이 아니라 근거로 사용되었다.

③ 이 글에서 세 사례의 차이점을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지는 않았다.
⑤ 한 사람의 사례에서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사례를 결론으로 이끌어 내었다면 이 글에 유비 논증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글에는 그러한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08 글쓴이는 1문단에서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서 2, 3, 4문단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5문단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예상 반론을 제시하였고, 뒤이어 평범한 사람들보다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은 내재 동기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9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기업에서 일 잘하는 직원 중에는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 사람들은 외재 동기가 충족되어도 주체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큰 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이 글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외재 동기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다)에서 '내재 동기를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휩쓸리는 인생을 살게되어 불행해진다.'라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는 외재 동기가 아니라 내재 동기를 등한시한 경우이다.
③ (나)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들, 즉 내재 동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지만 외재 동기가 아니라 내재 동기에 따라 산다고 했다. 이 글을 통해 외재 동기의 유혹을 많이 받을수록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지는 알 수 없다.
⑤ 이 글에서 내재 동기와 인간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0 (가)에서는 큰 상을 수상하는 외적 보상보다 내재 동기를 중시하는 파인먼과 임○○ 씨의 사례를 들고 있고, (나)에서는 파인먼과 임○○ 씨 같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지만 내재 동기에 따라 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추가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예상 반론을 제시했다.

② (다)에서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 내재 동기가 나온다고 했다.
③ (다)에서 사람들을 '고래'에, 외적 보상을 '조련사의 칭찬'에, 자유롭게 살면서 내재 동기를 발휘하는 삶을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④ (가)에서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파인먼과 국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임○○ 씨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11 (다)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이 글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고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 '기쁨'은 내재 동기의 충족에서 오는 만족감을, ㉢ '조련사'는 외재 동기를 높이려고 하는 타인을, ㉣ '칭찬'은 외재 동기를 유발하는 외적 보상을, ㉤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는 자유롭게 살면서 내재 동기를 마음껏 발휘하는 삶을 비유한 표현이다.

12 (나)에서는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 교수의 사례와 파인먼의 사례를 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외적 보상만을 좇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외재 동기만을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을 가정하고 있으나, 어떤 것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 언급한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모나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려고 연봉을 올려 주는 회사 대표가 익숙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나)에서 허○○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예상 반론을 반박하고 있지는 않다.

13 허○○ 교수에게 있어 '마라톤'은 깊이 있는 연구를, '근력 운동'은 그것을 하기 위해 수학 공부를 하며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14 (나)에서는 허○○ 교수와 물리학자 파인먼의 사례를 들어 내재 동기에 따라 기쁨을 느끼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이다. 한편 〈보기〉에서는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바를 제시하고 이를 사람과 정치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두 개 이상의 사물들이 유사한 속성이 있어서 한 대상에서 발견한 현상이 다른 대상에서도 발견될 것이라는 이유나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유비 논증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논증은 이미 알려진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인 연역 논증이다.
③ 개별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결론으로 도출하는 논증은 귀납 논증으로, 〈보기〉가 아니라 (나)에 사용되었다.
④ (나)와 〈보기〉에서는 문제가 제시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여러 주장을 반박한 부분 역시 찾을 수 없다.

1등급 평가 152~153쪽

01 ② **02** ⑤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3 [1단계] 사람, 행복
[2단계] 외재, 내재
[3단계]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이라는 의미이다. 이 글의 제목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칭찬과 같은 외재 동기가 아니라 내재 동기를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01 (나)의 실험은 외적 보상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하지만 ㉡은 외적 보상이 있을 때 모든 문제를 더 빨리 풀게 된다는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였다. 즉 ㉡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글쓴이의 근거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자신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동기의 개념)을 연결지어 이해하고 있다. ㉠이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은 내재 동기를 따라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외적 보상을 중시하는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은 허○○ 교수, 파인먼, 임○○ 씨와 같은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 외재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이 이미 외재 동기가 충족되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새로운 추측을 하였을 뿐,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근거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⑤ ㉤은 글쓴이의 주장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어 깨달음을 얻고 있을 뿐이다.

02 (마)에서 글쓴이는 내재 동기를 등한시하면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휩쓸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 불행해진다고 하였으며, 외부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 내재 동기가 나오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진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외적 보상과 같은 외재 동기가 창의적인 문제를 풀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내재 동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② (라)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학자 허○○ 교수, 물리학자 파인먼, 피아니스트 임○○ 씨 모두 국제적으로 큰 상을 받은 사람들로, 외재 동기가 아니라 내재 동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사례를 내재 동기를 따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있을 뿐 이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마)를 고려하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해야 내재 동기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지,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내재 동기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④ (다)와 (마)를 고려하면 외재 동기를 유발하는 외적 보상에는 칭찬이나 인정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있다.

03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발견

제목인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에서 '고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춤'은 행복을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이 제목을 달리 쓰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과 같이 쓸 수 있다.

◆ 2단계: 〈조건〉의 확인 및 적용

〈조건〉에 따라 제목의 의미를 밝히고 제목에 생략된 내용을 포함하여 주제와 관련지어 답을 써야 한다. 제목 뒤에 생략된 내용은 '칭찬과 같은 외재 동기가 아니라 내재 동기를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다.'로 쓸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제시된 제목의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하고, 〈조건〉의 형식과 내용에 모두 맞게 서술한 경우	5
제시된 제목이 비유하는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고, 제목에 생략된 부분을 〈조건〉의 형식과 내용에 맞게 서술한 경우	3
〈조건〉에 맞게 제목에 생략된 부분을 서술하지 못하고, 제시된 제목의 의미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구절이나 문장의 의미를 서술하라고 했을 때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반드시 일상어로 풀어서 서술해야 한다. 〈조건〉에만 집중하여 제목의 함축적 의미를 서술하지 않으면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답이 된다.

02 논증하고 토론하기

내용 확인하기 156~162쪽

1 ② **2** 정책 논제 **3** ⑤ **4** ① **5** ① **6** ② **7** ⑤ **8**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9** ③ **10** 유엔(UN)난민기구와 ○○ 리서치가 실시한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11** ⑤ **12** ① **13** ④ **14**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사례 **15** ③ **16** ③ **17** ② **18** ⑤

1 학생 2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라는 논제는 난민 인정률을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토론의 논제로 적절하지 않다.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라고 ㉠처럼 명시하면 그 뜻이 분명해진다.

2 이 토론의 논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이다. 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룬 논제이므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3 찬성 1은 입론의 초반부에서 이 토론과 관련이 있는 '난민'과 '난민 인정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자가 논제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사회자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다고 하였다.

② 사회자는 '먼저 찬성 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토론 순서를 안내하였다.

③ 사회자는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라면서 토론 방식을 안내하였다.

④ 사회자는 '토론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토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4 찬성 1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난민 인정률이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② 찬성 1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③ 찬성 1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했다.
④ 찬성 1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22.8%인데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0.8%로 매우 낮다고 했다.
⑤ 찬성 1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또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 선진국으로 들어섰다고 보는데 우리는 2017년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 총생산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10원 안팎의 경제 대국이라고 했다.

5 찬성 1은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찬성 1은 자연재해로 인해 난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을 뿐, 자연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③ 찬성 1의 입론에서 우리나라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언급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④ 찬성 1은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이 노동 활동을 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이것이 난민들에게 노동할 권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⑤ 찬성 1은 난민이 유입되면 세금 수입은 증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든다고 하였다.

6 반대 신문은 상대측 주장과 이유, 근거로 이루어진 논증의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 질문하는 말하기를 가리킨다. 제시된 반대 신문에서 반대 2는 '하지만 난민 ~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에서 찬성 측이 제시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 않을까요?'에서는 찬성 측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상대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근거의 불충분함,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말하기는 '반론'에서 나타난다.
③, ⑤ 찬성과 반대 양측이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말하기는 '입론'에서 나타난다.

7 반대 2는 반대 신문의 첫 번째 발언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 신청자가 많아져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언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서유럽 국가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지,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반대 2는 난민 인정률을 높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서유럽 국가를 근거로 하여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를 통해 반대 2가 지적한 찬성 1의 주장이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9 반대 1은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나라와 그들이 주로 찾는 나라를 밝히면서 '난민이 많이 찾는 주변국에서는 난민 인정률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겠지만', '우리나라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반대 1은 '유엔(UN)난민기구와 ○○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 중 33%는 난민 수용에 찬성했지만, 53%는 반대했습니다.'라면서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난민 인정률을 높여도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난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반대 1은 ㉡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에 이익보다는 여러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오답 풀이
①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론 조사 결과는 난민 인정률을 높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② 연도별 난민 신청자의 국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반대 측이 토론에 활용하기 적절한 자료이며, 제시된 토론문에는 나와 있지 않다.
③ □□ 일보가 제시한 난민이 주로 찾는 국가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가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이다.
④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난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살기 어렵다는 것은 난민 인정률을 높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이유에 해당한다.

12 찬성 1은 '여론 조사 결과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을 근거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에서 반대 1의 주장과 근거를 언

급하고, '그런데 그것은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한 것이지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면서 반대 1이 제시한 주장의 근거가 이유와 밀접한 관련을 갖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13 찬성 2는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4 찬성 2는 [B]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C]에서 반대 1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은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면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경우를 난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여 살고 있다는 동일한 근거를 각각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

15 찬성 2는 반대 2의 입론이 다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어서 ㉠과 같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에 언급된 난민 심사 문제는 논제인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와 관련 있는 내용이다.

②, ⑤ 이 부분의 세부 쟁점은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라고 볼 수 있다. 찬성 2는 쟁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④ 찬성 2는 통역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16 사회자는 반대 2의 입론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찬성 2에게 ㉡ '반대 신문은 반대 측의 입론이 끝난 뒤 진행해 주십시오.'라면서 토론 규칙을 안내하고,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17 찬성 2는 난민 심사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한 반대 측 제2토론자의 말을 언급하고 ㉠에서 난민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며 반대 2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찬성 2는 반대 2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다.

③ 찬성 2는 반대 2의 발언을 반복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도 추가하지 않았다.

④ 찬성 2는 구체적인 경험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찬성 2는 반대 2에게 동의를 유도하지 않았다.

18 찬성 2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대 2에게 '난민'을 '문밖에서 생명의 위협에 쫓겨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 비유하여 준비가 덜 됐으니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를 묻고 있다. 찬성 2는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반대 2의 주장이 난민들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찬성 2의 의견이다.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다.

② 찬성 2는 반대 2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③ 찬성 2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④ ㉡은 상식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미루는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164쪽

01 ④

01 〈보기〉는 반대 신문식 토론 담화의 일부이다. 양측은 입론, 반대 신문, 반박을 하며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맞게 발언 기회를 갖는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사회자의 발언은 2회, 찬성 1의 발언 역시 2회가 나타나 있다.

②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첫 입론은 찬성 측이, 마지막 반박은 반대 측이 한다. 하지만 〈보기〉에는 토론의 일부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③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다.

⑤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질문과 답변은 반대 신문에서 할 수 있고, 입론이나 반박 중간에는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는다.

소단원 평가 165~169쪽

01 ④ **02** ② **03** ① **04** ③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반대 신문이란 상대측이 준비한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말하기이다. **05** ② **06** ⑤ **07** 연역 논증이다. 하나의 국가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일반적 원리에서 우리나라도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구체적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08** ② **09** ④ **10** ⑤ **11** ④ **12** ① **13** 찬성 측(찬성 2)의 반대 신문

01 (가)를 고려하면 이 토론의 논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이다. 이는 정책 논제로, 어떤 정책을 실행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어떤 사실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루는 논제는 사실 논제이다.
② 논제는 토론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하고자 하는 것의 제목이나 주제를 가리킨다. 토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든다.
③ 어떤 사안이 옳은지 그른지 등의 가치 판단을 다루는 논제는 가치 논제이다.
⑤ 논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명확하게 대립하는 주제여야 한다는 대립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토론의 논제는 대립성을 갖추었다.

02 (나)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나)에서 이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을 분석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찬성 1은 '○○ 일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은~우리나라는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8%와 비교할 때 매우 낮습니다.'와 '○○ 일보에 따르면 2017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에서 신문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③ (나)에서 찬성 1은 독일과 서유럽의 사례를 들어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나)에서 찬성 1은 '○○ 일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은 룩셈부르크가 59.1%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8%와 비교할 때 매우 낮습니다.'라면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다는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⑤ (나)에서 찬성 1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03 반대 1은 유엔(UN)난민기구와 ○○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조사 결과,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아서 난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에 외국인 범죄율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서 반대 1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 수용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난민 인정률을 높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함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서 반대 1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난민이 많이 찾는 주변국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의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⑤ (가)에서 반대 1이 언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국민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4 (가)에서 반대 1은 '유엔(UN)난민기구와 ○○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 중 33%는 난민 수용에 찬성했지만, 53%는 반대했습니다. 2018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찬성이 24%, 반대가 56%였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졌'다고 했다. (나)에서 찬성 1은 반대 1이 언급한 내용에서 2018년도에서 2021년으로 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찬성 1은 (가)에서 반대 1이 언급한 □□ 일보의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 않다.
② (가)에서 반대 1은 '□□ 일보에 따르면 난민은 주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생기는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은 대부분 유럽으로 향하고, 중남미 출신의 난민은 미국과 캐나다로 간다고 합니다.'라면서 난민이 찾는 주변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에서 찬성 1이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가)에서 반대 1이 출처를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에 찬성 1이 이 자료의 출처에 대해 묻지는 않을 것이다.
④ 난민 인정률의 문제가 시급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점을 (가)에 제시된 반대 1의 발언에서 알 수 있다.
⑤ 난민 수용에 대해 국민들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가)에서 반대 1이 언급한 여론 조사 결과에 이미 나타나 있다.

05 찬성 2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과 제주도에 왔던 예멘 난민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했을 때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잘 살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찬성 2는 입론에서 우리나라도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과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찬성 2는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효과와 이익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④ 찬성 2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고 있지 않으며,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정책을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⑤ 제시된 부분에서 찬성 2가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06 [E]의 앞부분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경우가 특별한데 난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느냐고 반대 1이 질문하였고 [E]에서 찬성 2는 이 질문에 대해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단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사례는 한꺼번에 많은 수의 난민을 인정한 사례이고 그들이 잘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난민이 잘 정착하여 살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찬성 2는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난민으로 인정받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② [B]에서 반대 1은 찬성 2가 내세운 전제인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난민 인정률을 높일 것이 아니라 난민 기구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③ [B]에서 반대 1이 난민 기구에 다른 지원을 하여 의무를 다하자고 주장하자, [C]에서 찬성 2는 난민 기구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등의 간접적 지원으로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④ 찬성 2가 입론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잘 살고 있음을 내세워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D]에서 반대 1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은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특수한 경우이므로 이를 난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07 ㉠은 하나의 국가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일반적 원리를 전제로 하여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구체적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낸 연역 논증이다.

08 반대 2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 명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난민 심사 건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난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던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반대 2가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찬성 측이 난민을 수용하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반대 2는 독일의 경우에는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찬성 측 주장의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④ 반대 2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⑤ 반대 2가 언급한 〈난민법〉은 찬성 측 주장과 상충하는 법이라고 볼 수 없다.

09 반대 2는 입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난민법〉을 시행하여 합리적 절차에 따라 난민 심사를 하고 있다고 했으며,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찬성 2는 [A]에서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난민 심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반대 2의 발언에서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0 사회자의 말에서 (가)의 반대 2의 발언이 반대 측 제2토론자의 입론, 즉 반대 측의 두 번째 입론임을 알 수 있다. 반대 2는 두 번째 입론에서 우리나라는 난민을 위한 제도 등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것은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중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과 관련한 내용이다. 두 번째 입론이라고 하더라도 필수 쟁점과 완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가)에서 찬성 2가 반대 2의 발언 중간에 발언을 했다. 이에 사회자는 찬성 2에게 반대 신문은 반대 측 입론이 끝난 뒤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② 반대 2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공무원 1인 당 난민 심사 건수, 난민들의 심사 결과 대기 시간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11 (가)에서 우리나라의 세금 수입이 증가한 사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은 0.8%이라고 했다.
② (가)에서 토론의 주요 용어인 '난민'과 '난민 인정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③ (가)에서 오늘날 전쟁, 경제 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⑤ (가)에서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3만 달러가 넘어섰다고 했다.

12 (가)에서 찬성 1은 ○○ 일보의 기사를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찬성 2는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지 않았다.
③ 찬성 2는 상대방의 발언 중간에 자신의 발언을 하고 있다.
④ 반대 2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난민법〉을 시행하여 합리적 절차에 따라 난민을 심사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래 사회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⑤ 반대 2는 독일은 난민들의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난민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난민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13 (나)에서 반대 2의 발언은 반대 측 제2토론자의 입론에 해당하는 순서이다. 따라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에 따르면 반대 2의 발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찬성 측의 반대 신문이다.

1등급 평가 170~171쪽

01 ② **02** ④ **03** ①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4 [1단계] 난민 인정률, 경제 성장
[2단계] 독일, 경제
[3단계]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난민 수용 후 경제가 성장한 독일, 서유럽 국가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1 (다)에서 찬성 1은 난민을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도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찬성 1이 '난민을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은 0.1~0.6%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정책을 시행할 비용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찬성 1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책 도입의 불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나)와 (다)에서 찬성 1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이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다)에서 반대 2는 찬성 1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허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적하지는 않았다.
⑤ 반대 2는 (다)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여 부작용이 나타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활용하지 않았다.

02 (다)에서 반대 2는 난민 인정률을 높였을 때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난민 인정률을 높인 이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 4는 반대 2가 질문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아니라, 반대 2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이 토론의 논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이다. 학생 1은 토론 내용과 관련하여 뉴스에서 난민들의 모습을 본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② (나)에서 찬성 1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은 룩셈부르크가 59.1%로 가장 높'다고 언급했다. 이를 들은 학생 2는 찬성 1이 언급한 룩셈부르크 외에 다른 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궁금해하고 있다.
③ (나)에서 찬성 1은 '○○ 일보에 따르면 2017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라고 한 후, 우리나라는 '국민 총생산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잡았'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들은 학생 3은 찬성 1이 근거로 활용한 정보인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나 국민 총생산 규모 등이 현재는 어떠한지 최신 통계 자료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⑤ (다)에서 반대 2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 신청자가 많아져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 5는 국가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소요되는지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려고 한다.

03 (나)와 (다)에서 찬성 1은 ㉠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와 (다)에서 찬성 1은 생산 비용의 절감 효과에 대하여 언급

하고 있지 않다.

③ (나)에서 찬성 1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들어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④, ⑤ (다)에서 반대 2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여 난민 인정률을 높여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이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0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확인

(나)에서 찬성 1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단계: 〈조건〉의 확인 및 적용

(나)에서 찬성 1은 난민을 수용한 독일과 서유럽 국가의 사례를 들어 난민 유입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찬성 1이 제시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였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찬성 1이 제시한 구체적 사례는 포함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였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
찬성 1이 제시한 구체적 사례도 포함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였을 때 기대되는 효과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찬성 1은 독일이 2015년과 2016년에 난민과 이주민 110만 명을 수용하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는 점과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 서유럽 국가에 난민들이 이주한 후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에 난민이 유입되어 그들이 노동 활동을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에 제시된 찬성 1의 입론의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서술해야 감점을 피할 수 있다.

대단원 평가 172~177쪽

01 ④ 02 ① 03 ④ 04 ② 05 ④ 06 ② 07 ① 08 ⑤ 09 ④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유비 논증,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지닌 것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한다. 10 ④ 11 ① 12 ④

01 (라)의 마지막 문단에서 내재 동기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 나온다고 하면서 인간은 내재 동기에 따라서 살아야 행복해진다고 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내재 동기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에서 나온다고 정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외적 보상은 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효과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했다.

② (나)를 고려하면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외재 동기가 충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라)에서는 상황에 따라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를 조절할 것이 아니라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⑤ 이 글에는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된 뒤에 내면의 기쁨을 추구한다는 내용은 없다.

02 '돈'은 외적 보상에 해당하므로 외재 동기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많이 번 부자는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 즉 내재 동기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03 (다)에서는 허○○ 교수, 파인먼, 임○○ 씨의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보기〉를 고려하면 세 사람의 구체적 사례들이 다 참이더라도 모든 사람이 내재 동기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②는 어제 간 식당과 오늘 간 식당의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사람이 많은 식당은 맛이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냈으므로, (다)와 마찬가지로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것은 연역 논증이다. 한국 사람이 친절하다는 일반적 사실에서 그 사람도 친절할 것이라는 구체적 사례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 냈다.

②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것은 연역 논증이다. 비가 올 때는 언제나 길이 미끄럽다는 대전제와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소전제가 참이면 지금 길이 미끄러울 것이라는 결론도 참이다.

③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것은 연역 논증이다. 할머니 농장에서 키운 사과는 모두 맛있으며, 이 사과는 할머니 농장에서 키

운 사과라는 전제가 참이면 이 사과도 맛있을 것이라는 결론도 참이다. 일반적인 사실에서 구체적 사례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 냈다.

⑤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이 높고 결론과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타당성이 커지는 것은 유비 논증이다. 음식을 먹는 것과 독서를 하는 것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그 즐거움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 냈다.

04 (가)에 제시된 실험은 외적 동기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가)에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동기에 관한 실험을 언급하면서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어떤 자료 등을 인용할 때 구체적인 출처를 제시하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③ (나)의 '외재 동기면 어떤가,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와 (라)의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에서 독자의 반론을 예상하고 있다.

④ (다)에서는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인 허○○ 교수, 파인먼, 임○○ 씨에 대해 언급하고, (라)에서는 이들이 평생을 외재 동기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내재 동기를 따라 살며 행복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⑤ (가)~(다)에 제시된 여러 가지 사례와 이유를 바탕으로 (라)에서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05 (가)는 고전 수필의 종류인 설(說)로,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을 근거로 들어 사람의 태도와 나라 정치의 방향에 관한 글쓴이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는 토론으로 토론 참가자들은 이유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 대한 설명이다.

② (가)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는 않았다.

③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니다.

⑤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06 (가)는 집을 수리한 경험을 통해 사람의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쁘게 되고, 나라의 정치에서도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두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이를 통해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는 태도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07 (나)에서 반대 2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의 근거로 2021년 공무원 1인당 난민 심사 건수가 평균 129건이었다는 점, 난민들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 20.8개월이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고 있다.

08 (나)에서 반대 2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 2는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난민의 정착을 돕는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독일마저 현재 여러 문제를 마주하고 있으므로 난민과 관련된 제도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는 더욱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는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독일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찬성 2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 (나)를 고려하면 찬성 2가 난민 인정률을 높일 때 생기는 문제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②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과 불법 이민자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③ 난민과 불법 이민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반대 측이 아니라 찬성 측이 할 만한 발언이다. 또 〈보기〉에서 독일에서는 불법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를 찬성 측에서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반대 2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이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09 (나)에서 반대 2는 난민을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진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난민을 위한 제도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나라는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나)에서 반대 2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을 지닌 나라가 아니라 다른 상황을 지닌 나라의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글쓴이는 행랑채 수리라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과 나라의 정치 문제로 확장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의 글쓴이는 개인의 경험과 삶의 태도와 나라의 정치 사이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잘못을 알면 바로 고쳐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③ (나)의 찬성 2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위협에 쫓기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는 문제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반대 신문을 하고 있다.

⑤ (나)의 반대 2는 찬성 2가 활용한 난민 문제와 위협에 쫓기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는 문제를 역으로 활용하여 난민 수용률을 높여 난민을 섣불리 수용했을 때 안정이 깨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0 (다)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인다 해도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아서 난민들이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대 1의 주장은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찬성 1의 주장은 정책을 실행했을 때 생기는 효과나 이익(ⓒ)에 해당한다.

②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찬성 1의 주장은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에 해당한다.

③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그들을 보호하려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라는 찬성 1의 주장은 문제의 심각성(ⓐ)에 해당한다.

⑤ 우리나라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반대 1의 주장은 문제의 심각성(ⓐ)에 해당한다.

11 (나)에서 찬성 1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는 근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 내용 중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찬성 1이 언급한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의 서유럽 연구 결과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의 이유가 아니라 근거이다.

③ (나)에서 찬성 1이 언급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찬성 1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④ (다)에서 반대 1은 난민 인정률을 높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의 근거가 아니라 이유로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살기 어려움을 제시했다.

⑤ (다)에서 반대 1이 제시한 난민들이 많이 찾는 나라와 관련한 기사 자료는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이유가 아니라 근거이다.

12 학생 4는 (나)에서 찬성 1이 제시한 독일이나 서유럽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난민 인정률이 높은 나라들의 경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을 뿐, 찬성 1의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지를 따지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학생 1은 (다)에서 반대 1이 내세운 근거인 난민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명확하지 않고 불충분하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난민 관련 범죄율을 조사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우리나라가 난민 발생 지역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 때문에 난민 인정률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 (다)의 반대 1의 언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난민 인정률이란 난민 신청자 중 인정받는 사람의 비율이므로 신청자가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③ 학생 3은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다)에서 반대 1이 활용한 근거인 여론 조사 자료가 적절한지 따지고 있다.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도 난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컸기 때문에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⑤ 학생 3과 4 모두 (나)와 (다)에서 토론자들이 제시한 자료 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5 세상과 나를 분석하라

01 사회적 쟁점에 관한 글 쓰기

내용 확인하기 181~184쪽

1② 2④ 3② 4③ 5⑤ 6㉠, ㉢ 7① 8②

1 매체 자료 1은 신문에 실린 기사문으로 표제, 부제, 전문, 본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 매체 자료 1과 매체 자료 2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이라는 동일한 통계 수치를 인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매체 자료 1과 매체 자료 2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오답 풀이
㉠ 매체 자료 1은 신문 기사, 매체 자료 2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다. 두 매체 자료 중 어느 것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매체 자료 2의 대한민국 국민이 사라졌다는 과장된 표현 등을 고려할 때 매체 자료 2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매체 자료 1은 신문 기사로, 문자 매체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3 개인 방송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생산 가능 인구 5.3명이 부양하던 구조가 2050년에는 고령자 1명을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에서 통계청의 통계 수치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수민이네 모둠이 분석한 매체 자료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 해당한다.
③ 수민이네 모둠이 분석한 개인 방송은 "충격! 대한민국 국민이 사라지고 있어요."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④ 수민이네 모둠이 분석한 개인 방송이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의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이다. 이 개인 방송은 어느 집단이나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저출생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⑤ 수민이네 모둠이 분석한 개인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나 대처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 [A]에서 '단편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해당 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야.'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 수민이네 모둠은 인터넷 개인 방송 자료의 제작자가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의제를 다룬 인터넷 개인 방송을 수용할 때에는 내용의 전문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우리가 분석한 개인 방송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려고 내용을 과장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개인 방송에서 얻은 정보는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② [A]를 통해 개인이 제작한 방송이 많은 사람이 시청한다면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④ [A]에서 제시된 매체 자료는 '저출생 문제에 관한 심각성을 보여주기에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했으므로, 개인 방송도 이와 같은 사회적 의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A]에서 '단편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해당 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을 뿐, 개인 방송 제작자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단편적 주장만 드러내는 것이 낫다고 하지는 않았다.

5 '우리 모둠이 정리한 사회적 쟁점'과 '수민이의 글쓰기 계획'을 살펴보면, 수민이가 선택한 사회적 쟁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수민이의 글쓰기 계획을 보면, 수민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정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는 국가의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풀이
㉡ 수민이의 주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이므로 개인이나 기업 차원의 해결책을 두루 조사하여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 수민이가 고려한 예상 독자는 '나와 생각이 다른 학생들'이므로 이미 주제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글의 내용과 거리가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흥미를 유발하기보다는, 예상되는 다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7 제시된 개요의 서론에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저출생 관련 예산의 차이'를 언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들의 한 해 예산을 분석한 논문은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의 예산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서론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개요의 서론에서 '시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추이'를 언급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개요의 본론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효과를 거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할 때 영국의 아동 수당 제도에 대해 보여 주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C 국가, 즉 영국에서 아동 수당 제도를 실시하기 전과 후 출생율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도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개요의 본론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효과를 거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할 때 보육과 교육에 관한 국가 지원으로 저출생을 극복한 프랑스의 사례를 다루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보육과 교육에 지원을 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한 B 국가, 즉 프랑스의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개요의 본론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효과를 거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할 때 일본의 출산 보조금 제도에 대해 다루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 보조금 제도를 활용한 A 국가, 즉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신문 기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8 〈보기〉는 대조에 대한 설명이다. 대조는 두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므로, 외국과 우리나라 저출생 관련 예산 규모의 차이를 나타내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나열'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사례이다.

③ '비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사례이다.

④ '인과'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사례이다.

⑤ '논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사례이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185쪽

01 ③ 02 ①, ③

01 매체에서 수집한 자료라 하더라도 인용한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만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매체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 모두를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사회적 의제를 선정할 때는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시의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사회적 의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주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고 있을 것이다.

④ 사회적 쟁점이란 사회적으로 의견이 달라 다툼의 중심이 되는 관점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회적 의제에 대한 여러 관점 중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달라서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회적 쟁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⑤ 개요를 작성할 때는 각 문단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 전개의 일반적인 원리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02 〈보기〉에서는 '2014년 1.2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1.24명으로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0.04명이 늘어난 것을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①). 또한 〈보기〉에서는 '요즘 저출생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2014년과 2015년의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을 '요즘'이라고 보는 것은 사람에 따라 그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렵다(③).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보기〉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통계청의 조사를 인용하고 있다.

⑤ 〈보기〉에서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수치 변화를 과장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 전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소단원 평가 186~188쪽

01 ②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가)와 (나)는 모두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다루고 있다. 02 ③ 03 ② 04 ④ 05 ③ 06 ③ 07 ④ 08 ①

01 (가)와 (나)는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다루고 있다.

02 (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합

계 출산율이 1명 이상이라는 의미이므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는 사실은 (가)와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②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 (나)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④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해 있다. 또 (가)와 (나)를 통해 합계 출생율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⑤ (가)에서 '출생아가 줄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 규모는 5만 7,300명에 이르렀다.'라고 한 것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합계 출산율을 바탕으로 인구의 감소 추세를 확인한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를 기준으로 인구의 감소 추세를 확인하는지는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없다.

03 ㉠은 막대 그래프로,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다.

04 (가)에서 전문은 '지난해 ~ 이르렀다.'이다. 전문에는 독자의 흥미를 끌 주변적 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 부분에서는 기사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05 우리가 매체 자료를 분석할 때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또 매체 자료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료는 타당성과 객관성, 논리성을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매체 자료에서 인용한 자료가 이미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보기〉에서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라고 했다. (나)를 고려하면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개인 방송의 내용은 이를 과장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이는 앞으로의 인구 변화와 관련이 있다.

④ 합계 출산율이 15~49세의 여성 한 명이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이유는 15~49세가 여성의 가임기(일생에서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개인 방송을 보고 합계 출산율만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5개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지요.'라면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07 수민이의 주장과 개요의 본론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과는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조직하거나 전개하는 방법이므로, 수민이는 프랑스의 영유아 정책은 프랑스가 보육과 교육에 관해 지원을 했기 때문에(원인)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었다(결과)는 흐름으로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어떤 일의 순서를 안내하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절차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조직하거나 전개하는 내용 전개 방식은 '과정'이다.

오답 풀이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면 시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추이를 잘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② 내용 전개 방식 가운데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저출생 관련 예산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③ 내용 전개 방식 가운데 '분석'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본론에서 이를 활용한다면 저출생 대책으로 효과를 거둔 나라들을 각각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내용 전개 방식 가운데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하는 방법이다. 본론에서는 비교의 방법을 활용하여 일본과 영국의 사례가 가진 유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08 수민이의 주장과 개요에서 서론과 본론을 보면 수민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외국의 저출생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론 부분에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면서 정부 정책의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수민이의 주장과 개요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수민이의 주장과 개요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효과를 거둔 국가로 프랑스, 일본, 영국을 들고 있다. 따라서 결론에서 이들 국가 간 정책의 차이점을 부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수민이의 주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④ 수민이의 주장과 개요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⑤ 수민이의 주장과 개요에서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에 전혀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1등급 평가 189쪽

01 ②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2 [1단계] 법적 인격

[2단계] [본론 2]

[3단계] 〈보기 2〉는 인공지능에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보기 1〉의 개요 중에서 인공지능이 인격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본론 2]이므로 〈보기 2〉가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부분은 [본론 2]이다.

01 〈보기 1〉의 "최근 4년 사이 어린이집 8,000개 폐원", "2050년 1.4명당 노인 1명 부양"에서 보도 자료의 표제를 인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지난 2001년 약 1.3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1970년 4.53이었던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변화 추이를 보여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 출생율'에서 화제와 관련된 핵심 용어인 합계 출산율의 의미를 설명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풀이

㉢ 〈보기 1〉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나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드러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보기 1〉에서 의문형 문장을 활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2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보기 2〉의 내용 파악

〈보기 2〉에는 인공지능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다.

◆ 2단계: 〈보기 1〉에서 관련 내용 파악

〈보기 1〉에서 인공지능의 '인격권'이 언급된 문단은 [본론 2]이다. 따라서 〈보기 2〉는 [본론 2]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보기 2〉가 뒷받침할 수 있는 문단이 [본론 2]임을 밝히고, 〈보기 1〉의 핵심 내용을 근거로 그 이유를 적절히 설명한 경우	5
〈보기 2〉가 뒷받침할 수 있는 문단이 [본론 2]임을 밝혔으나 그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3
〈보기 2〉가 뒷받침할 수 있는 문단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보기 1〉의 핵심 내용은 제시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보기 1〉에서 〈보기 2〉의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보기 2〉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 그것과 개요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02 나의 진로 분야 공유하기

내용 확인하기 191~196쪽

1 ③ 2 ⑤ 3 ④ 4 ⑤ 5 ⑤ 6 ④ 7 ③ 8 ④ 9 ② 10 ①, ② 11 ③ 12 ④

1 진로 독서를 위한 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진로의 종사자가 쓴 책뿐만 아니라, 해당 진로의 발전 방향 등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룬 책을 고려할 수 있다.

2 〈보기〉는 사회 복지 관련 분야 중 특히 다문화 사회에 관심이 많은 학생의 생각이다. ⑤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 복지와 관련된 책으로, 학생의 관심 분야와 거리가 멀다.

3 이 글은 수필 중에서도 수기에 해당한다. 엔지오에서 일하는 사회 복지사인 글쓴이가 동티모르에 파견을 가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전달하고 있다.

4 〈보기〉의 ㉠은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이 독자로 하여금 글쓴이와 동일한 시행 착오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글의 3문단에서는 국제 사회 복지에 나선 글쓴이가 동티모르 사람들과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은 독자가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경우, 미리 해당 국가의 문화적 배경이나 언어를 익히면 시간을 절약하여 목표에 좀 더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③ 학생이 글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이 지닌 가치를 깨달은 것일 뿐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②, ④ 학생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일 뿐,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5 이 글의 글쓴이는 지구촌나눔운동에서는 2008년부터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한정된 인력과 시간 때문에 1년에 두세 차례밖에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동티모르에서 아동 교육이 지금까지 두세 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구촌나눔운동에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1년에 두세 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처음 동티모르에 파견 와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생기는 차이,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소통의 문제였다.'라면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내가 활동했던 동티모르의 로스팔로스 지역'이라고 했고, '시범적으로 2개 학교에서 14명의 교사들과 미술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하였다.

③ 글쓴이는 '누군가와 친구가 되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나'라고 했다.

④ 글쓴이는 '국제 사회 복지라는 건 문화와 배경이 조금 다른 마을에서 주민들과 관계를 맺으며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공생을 살리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 복지와 맥을 같이한다.'에서 국제 사회 복지와 지역 사회 복지의 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6 이 글에서 글쓴이가 교사 교육을 ㉠ '마중물'에 비유한 까닭은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부으면 몇 배 몇십 배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교사를 교육하면 그 결과로 몇 배의 학생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7 주제 통합적 독서란 하나의 화제나 주제에 관한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읽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할 때에는 주제와의 관련성, 난이도, 분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책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책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신만의 관점이나 주제로 재구성해야 한다.

오답 풀이

㉡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면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포함하여 그와 연관이 있는 다른 주제의 글이나 자료도 접할 수 있다.

8 우진이가 세운 독서 계획에는 국제 사회의 문제를 다룬 사회 분야의 책, 진로 분야의 책, 인권의 개념을 다룬 인문 분야의 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우진이는 폭넓은 분야의 도서를 읽으려고 계획하였으나, 사회 복지 학과에 대한 입시 정보를 다룬 책을 읽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9 카드 뉴스 제작은 '주제 선정하기 → 정보 수집하기 → 기획안 작성하기 → 카드 뉴스 제작하기' 순서로 진행된다.

10 카드 뉴스를 제작할 때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탐구 주제를 선정한 까닭을 생각해 보고,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11 우진이네 모둠이 제작한 매체 자료는 카드 뉴스이다. 카드 뉴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기에 적합한 매체 자료로, 그림이나 그래프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글자의 크기와 색상을 조절하여 한정된 공간에 간략한 내용을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이나 동영상을 활용하지는 않는다.

12 우진이네 모둠이 제작한 카드 뉴스에서는 사회 복지사의 사회적 가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카드 뉴스에서 사용한 그래프는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진이네 모둠이 이 그래프를 활용한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 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내신 잡는 시험 족보 197쪽

01 ④ 02 ②

01 진로를 주제로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할 때는 특정한 진로에만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범위의 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02 제시된 매체 자료는 카드 뉴스이다. 글자 크기와 색깔에 변화를 주어 주요 내용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인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 제시된 카드 뉴스는 중요도에 따라 글자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여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카드 뉴스는 한 장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카드 뉴스에서도 적절한 양의 글자를 배치하였다.

소단원 평가 198~201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⑤ 05 ④ 06 ⑤ 07 ④ 08 ③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글쓴이는 ⓐ를 통해 교사 교육이 교사들의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09 ④ 10 ② 11 ③

01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우진이네 모둠의 프로젝트 과제는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고 주제 통합적 독서를 실시한 후, 독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재구성하여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우진이네 모둠은 책을 선정하는 (다), 독서 계획을 세우는 (나),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인 (라)를 거쳐 매체 자료인 (가)를 완성했을 것이다.

02 (가)는 카드 뉴스이다. (가)의 경우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명확한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카드에서 그래프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추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보는 사람에게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사회 복지사의 사회적 가치가 점차 커질 것임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지, 이에 대해 성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카드 뉴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기에 적절하다.

② 카드 뉴스는 시각 자료와 짧고 간결한 글을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③ 카드 뉴스는 제한된 공간에 간결하고 핵심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④ (가)는 사회 복지사라는 진로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카드 뉴스이다.

03 (나)에서 우진이는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뿐,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②, ⑤ 우진이는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 관련 글이나 자료를 찾아 읽다 보면, 폭넓은 시각은 물론 그 직업에 관한 지식도 얻을 수 있겠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우진이는 '친구들과 함께 같은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대화하니,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어.'라면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④ 우진이는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진로 독서 계획을 세워 보려' 한다면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 관련 글이나 자료를 찾아 읽'겠다고 했다.

04 글의 분량이 계획한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글 읽기 중간에 읽기 과정을 점검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을 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05 (라)를 고려하면 ㉡은 정보 수집하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은 카드 뉴스 제작하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은 주제 선정하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진이네 모둠은 카드 뉴스를 제작하기 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토의를 했을 것이다.

오답 풀이

㉠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매체 자료의 사회적 파급력이 날로 커지고 있고, SNS 등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다수의 수용자가 대상이 되므로 생산된 매체 자료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진다. 따라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매체 자료의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한 것이 아니므로 우진이네 모둠원들이 카드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토의했을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06 이 글은 수필 중에서도 수기에 해당한다. 수기도 수필의 일종이므로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글에 일정한 형식과 규정된 표현 방식이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나)에서 글쓴이가 동티모르에 처음 파견을 갔을 때 마을 내 사무소에 딸린 집에 살았는데, '쉬는 날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면 어김없이 불러 세워 안부를 묻거나 밥때가 되면 밥 먹고 가라고 붙잡는 손길', '시골 생활이 어설픈 나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 주던 아주머니들'을 언급하며 마을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했다고 했다. 동티모르의 마을 주민들은 글쓴이를 외면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을 읽고 동티모르 사람들이 글쓴이를 외면한 까닭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글쓴이는 바우로 지역이 자신의 활동 무대이자 삶의 터전이라고 했고, (나)에서 '동티모르에 파견'을 왔다고 했으며, (다)에서 자신이 '동티모르의 로스팔로스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5개 마을 500여 가구 2,800여 명이 사는 바우로 지역'이라고 했다.

③ (다)에서 동티모르의 로스팔로스 지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지식인들 대부분이 희생하여' 교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⑤ (나)에서 '처음 동티모르에 파견 와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생기는 차이,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소통의 문제였다.'라고 했다.

08 ⓐ는 글쓴이가 진행한 교사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인 사례이다.

09 ㉠은 사회 복지사의 역할이자 글쓴이가 로스팔로스에서 시작한 교사 교육의 특징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다. 글쓴이는 사회 복지사의 노력이 밑거름되어 몇 배의 결과로 돌아온다는 점과 교사 교육이 더 많은 학생들의 교육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 복지사의 역할과 교사 교육을 펌프질 할 때의 '마중물'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오답 풀이

① '달물'은 매달 물장수에게 값을 치르고 사는 물을 뜻한다.
② '강물'을 강에 흐르는 물을 뜻한다.
③ '개숫물'은 음식 그릇을 씻을 때 쓰는 물을 뜻한다.
⑤ '낙숫물'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을 뜻한다.

10 〈보기〉의 학생은 사회 복지와 관련된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사회 복지 관련 일을 하는 인물로, (가)에서 '대학에서 사회 복지를 전공'하였다고 했다. 〈보기〉의 학생이 이 글을 읽는다면 사회 복지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려면 대학에서 사회 복지를 전공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1 읽기 전 활동에는 읽기 목적 확인하기,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책의 내용 예측하기 등이 있다. 읽는 중 활동에는 새롭게 알게 된 정보 찾기, 궁금한 점 메모하기 등이 있다. 읽은 후 활동에는 읽기 전과 후 나의 생각 비교하기 등이 있다.

1등급 평가 202쪽

01 ⑤ **02** ③ **03** ⑤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04 [1단계] 공유 (또는 전달/전파)
[2단계] 개인 정보
[3단계] 매체 자료를 인터넷 공간에 올리면 이 자료가 쉽게 다른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으므로 매체 자료를 인터넷 공간에 올리기 전에는 매체 자료에 개인 정보와 같이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01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할 때는 읽는 목적에 맞게 주제를 통합하고 재구성하며 읽어야 한다. 주제 통합적 독서 후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매체가 생산되고 소통되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하고 공유해야 한다.

02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체 자료의 제작 목적과 주제를 선정하고(㉢), 정보를 수집한 후(㉠), 표현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모둠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제작하고 이를 편집·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03 〈보기〉에서 선유는 독서를 통해 사회 복지사가 국제 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수민이는 독서를 통해 사회 복지사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를 통해 선유가 독서 전에 사회 복지사가 어떤 직업인지 몰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② 〈보기〉를 통해 수민이가 독서 전에 고령화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③ 독서를 통해 사회 복지사의 미래 전망이 긍정적임을 알게 된 학생은 수민이다.
④ 독서를 통해 사회 복지사가 수행하는 구체적 일을 알게 된 학생은 선유이다.

04 1등급을 결정짓는 서술형 문제

◆ 1단계: 키워드 확인

인터넷 공간은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인터넷 공간에 게시된 게시물은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다.

◆ 2단계: 〈조건〉 확인 및 적용

인터넷 공간의 특징으로 인하여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한 내용을 인터넷 공간에 함부로 올리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감점 피하기

채점 기준	배점
인터넷 공간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언급한 경우	5
인터넷 공간의 특징을 정확하게 서술하였으나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3
인터넷 공간의 특징을 모호하게 설명하고,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도 분명하지 않게 서술한 경우	1

◆ 감점 피하기 tip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 비대면성, 신속성 등 여러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이 지닌 다양한 속성 중 자료를 게시할 때의 유의점과 관련 있는 속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대단원 평가 203~207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③ 05 ⑤ 06 ③ 07 ② 08 ④
09 ⑤ 10 ④ 11 ③ 12 ③

01 '사회적 의제'란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를 말하며(㉣), 다양한 매체에서 소재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다(㉠).

오답 풀이

㉡ 사회적 의제는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는 내용이므로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기도 한다.
㉢ 많은 사회 구성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다.

02 사회적 쟁점은 개인이나 집단 간에 문제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이 서로 달라 충돌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주제는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을 범법 행위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는 동일한 의제에 대해 사람이나 집단에서 관점이나 생각이 서로 달라서 이견이 생기는 주제가 아니므로 사회적 쟁점으로 볼 수 없다.

03 〈보기〉의 '합계 출산율이란 15세에서 49세 가임기 여성이 가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에서는 '합계 출산율'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대상의 본질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의 내용 전개 원리를 '정의'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② 예시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③ 비교란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④ 과정이란 어떤 일의 순서를 안내하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절차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조직하거나 전개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⑤ 인과란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조직하거나 전개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04 (가)의 매체 자료 1과 2는 상반된 주장을 다루고 있지 않다. 모두 우리나라의 저출생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05 (나)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요답 풀이
① (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5개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합계 출산율이 0명대라는 것이 아예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② (나)의 "충격! 대한민국 국민이 사라지고 있어요."와 '0명!'은 자극적인 표현이다.
③ (나)의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생산 가능 인구 5.3명이 부양하던 구조가 2050년에는 고령자 1명을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부양해야 하는 구조'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제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개인 방송으로, 시청자의 관심을 끌려고 내용을 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수용하고자 할 때는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06 ㉠과 ㉢은 저출생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쟁점이다. 그러나 ㉡은 저출생 상황을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요답 풀이
① ㉠, ㉡, ㉢은 모두 사회적 쟁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집단이나 개인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② ㉠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는 쟁점이다.
④ ㉢은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쟁점이므로 셋 이상의 다양한 해결 방안이 대립할 수 있다.
⑤ 수민이는 여러 쟁점 중 ㉢을 선택하여 국가 정책을 통한 해결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려고 한다.

07 진로 분야를 탐색할 때는 자신의 흥미, 특기,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한 인접 분야까지 폭을 넓혀서 탐색해야 하며(㉡), 만약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심리 검사나 적성 검사 등 진로 탐색과 관련된 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요답 풀이
㉢ 수입 등의 경제적 측면만을 우선으로 두고 진로를 고민하면 자신의 특성이나 흥미 등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8 (나)와 같이 읽을 책을 선정할 때는 자료의 수준, 읽기 목적, 출처의 신뢰성, 분량의 적절성 등을 고루 고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책인지의 여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09 (다)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은 학생들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라)에서는 (다)의 대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와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장기적으로 읽어 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다)의 활동과 관계 없이 (라)에서 독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0 이 글에서 사회 복지사가 얻는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1 (나)에서 글쓴이는 파견 초기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생기는 차이로 힘들었다고 했다. 따라서 글쓴이가 파견 간 국가가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나)에서 글쓴이가 자신이 '외국인'에서 '티모르 사람'이 되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는 글쓴이가 그만큼 문화적으로 동티모르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갔다는 의미일 뿐, 국적을 바꾸었다는 것은 아니다.